



보도시점 2023. 9.6.(수) 06:00 배포 2023. 9.5.(화) 15:00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 '22년 1인 가구는 '21년 대비 4.7% 증가, 남성 30대, 여성 60대 가장 많아
- '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10년 이후 최고 수준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근로자는 '19년 대비 3.4배 증가
- '22년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20년 대비 감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9월 6일(수) 발표했다.

□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인 가구는 750만 2천 가구로 '21년 대비 4.7% 증가했고, 남성 1인 가구는 30대(22.0%), 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았다.

*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여성	0.7	18.1	12.7	9.5	12.7	18.3	15.2	12.7
남성	0.7	18.9	22.0	16.5	17.6	15.1	6.3	3.0

○ 2022년 초혼 건수는 14만 8천 건으로, '21년 대비 0.6% 감소했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21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했다.

* 평균 초혼 연령: ('21) 남성 33.4세, 여성 31.1세 → ('22) 남성 33.7세, 여성 31.3세

○ 2022년 다문화 가구 가구원은 115만 1천 명으로 '21년 대비 2.8% 증가했고, 그중 여성 가구원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20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10년(52.7%) 대비 7.3% 포인트(p) 상승해 처음으로 60%에 진입하였다.

- 2022년 여성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8.4%로 '10년 대비 2.8%포인트(p) 상승했고, 남성은 12.4%로 2.4%포인트(p) 상승했다.

* 취업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비율(%): ('10) 남성 10.0, 여성 5.6 → ('22) 남성 12.4, 여성 8.4

- 2022년 여성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근로자는 22.8%, 남성 저임금 근로자는 11.8%로 '10년 대비 여성은 17.0%포인트(p), 남성은 4.4%포인트(p) 감소했다.

* 저임금근로자 비율(%): ('10) 남성 16.2, 여성 39.8 → ('22) 남성 11.8, 여성 22.8

- 2022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10만 5천 명) 대비 남성은 약 1만 6천 명, 여성은 약 1만 명 증가했다.

* 육아휴직자(명): ('19) 여성 82,886, 남성 22,295 → ('22) 여성 93,245, 남성 37,884

-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8천 명으로 '19년(2만 2천 명) 대비 1.7배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육아휴직자 성별 구성비(%): ('19) 여성 78.8, 남성 21.2 → ('22) 여성 71.1, 남성 28.9

-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만 9천 명으로 '19년(5천 6백 명) 대비 3.4배 증가했다.

- 2022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남성(17.3%)과 여성(14.4%) 모두 '19년 대비 5.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남 5.1%p, 여 5.4%p).

*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19) 남성 12.2, 여성 9.0 → ('22) 남성 17.3, 여성 14.4

- 2022년 기준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23.7%)과 남성(18.2%) 모두에서 '20년 대비 각 1.4%포인트(p), 2.9%포인트(p)씩 감소했다.

* (가사분담 실태)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응답비율(%): ('20) 여성 25.1, 남성 21.1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 이 자료는 공표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통계에 따라 활용가능한 시계열 기간이 달라 수록된 자료의 시계열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각 영역별 시계열 비교 시점은 장기 추세, 코로나19, 자료 공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최신 통계와 비교함
 - (인구) '21년 대비, (노동시장) '10년 대비, (일·생활균형) '19년 대비, (사회인식) '20년 대비

【붙임】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담당 부서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책임자	과 장	황별이 (02-2100-6171)
		담당자	사무관	홍영희 (02-2100-6181)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일 러 두 기

☐ 1997년부터 발표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 2022년부터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회 현상과 관련이 높은 인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등의 최신 통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시계열로 제시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변경된 양성평등주간*에 맞춰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본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양성평등주간 : 9.1.~9.7.

☐ 이 자료는 공표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통계에 따라 활용가능한 시계열 기간이 달라 수록된 자료의 시계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록된 수치는 2023년 7월 말 기준 발표된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 또는 가공한 것입니다.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계산 단위에 따라 통계청 등의 공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인구와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증가



노동시장

남녀 고용률 상승,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노동시장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임금수준 상승



일·생활균형

남성 육아휴직자 및 남녀 유연근무활용률 증가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률 남녀 모두 증가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23.2%



여성폭력

폭력 상담건수 20년 대비 증가



사회인식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남녀 모두 30대 가장 높아(2021년)



목 차

□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요약)	1
□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1
I. 인구와 가구	1
1. 인구	1
2. 가구	3
3. 1인 가구	5
4. 맞벌이 가구	7
5. 한부모 가구 및 미혼부모 인구	9
6. 외국인·다문화 가구원	11
7. 혼인과 이혼	14
II. 노동시장	17
8.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17
9. 고용률	18
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
11. 비정규직 취업자	22
12. 산업별 취업자	24
13. 직업별 취업자	26
14. 규모별 취업자	27
15.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근속기간	28
16. 경력단절여성	30
17. 성별 임금격차	31
18. 저임금근로자	33
III. 일·생활 균형	35
19. 육아휴직자	35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7
21. 유연근무제	39
22. 시간 사용	41

IV. 경제상황	43
23. 자산과 부채	43
24. 가구소득	44
V. 사회안전망	46
25. 국민연금	46
26. 고용보험	47
27. 건강보험	48
28. 기초생활수급자	49
VI. 의사결정	50
29. 국회의원 및 장관	50
30. 고위공무원	51
31. 관리자 비율	53
32. 기업의 이사 비율	54
33. 유권자 수 및 투표율	55
VII. 여성폭력	56
34.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56
35. 가정폭력 검거 현황	58
36. 교제폭력 및 스토킹 현황	59
37. 사이버 성폭력 검거 현황	61
38. 해바라기센터 방문 현황	62
39. 폭력 유형별 상담 현황	63
VIII. 건 강	64
40. 기대수명	64
41. 건강행태	66
42.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71
4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72
44. 우울증 및 자살 사망자 수	73
45. 치매 유병률	75

46. 임신 및 출산	76
47. 불임 치료 및 난임 시술	77

IX. 사회인식 78

48. 주관적 만족감	78
49. 성역할 인식	79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요약)

I 인구와 가구

2022년 1인 가구는 '21년 대비 4.7% 증가, 남성 30대, 여성 60대 가장 많아

- 2023년 전체 인구는 5,15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50대 남성(16.7%)과 여성(16.5%)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여성 6.3%로 가장 높음

< 연령대별 인구 >

(단위 : 천 명, %)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여성	2022	25,838	1,767	2,220	3,171	3,262	3,964	4,270	3,689	2,055	1,440
	2023	25,808	1,657	2,214	3,057	3,225	3,907	4,270	3,841	2,107	1,530
	구성비	100.0	6.4	8.6	11.8	12.5	15.1	16.5	14.9	8.2	5.9
	'22년 대비	-30	-110	-6	-114	-37	-57	0	152	52	90
남성	2022	25,790	1,858	2,369	3,553	3,593	4,122	4,318	3,519	1,714	747
	2023	25,750	1,742	2,354	3,420	3,581	4,071	4,308	3,685	1,777	812
	구성비	100.0	6.8	9.1	13.3	13.9	15.8	16.7	14.3	6.9	3.2
	'22년 대비	-40	-116	-15	-133	-12	-51	-10	166	63	6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 2023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746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2%이고, 전년 대비 0.5%p 증가함

* 여성 가구주 가구 규모(가구) : ('22) 727만 7천 → ('23) 746만 7천

- 2022년 1인 가구는 750만 2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34.5%이며, '21년 대비 33만 6천(4.7%) 가구 증가함

* 1인 가구 규모(가구) : ('21) 716만 6천 → ('22) 750만 2천

- 연령대별로 남성 1인 가구는 30대(22.0%), 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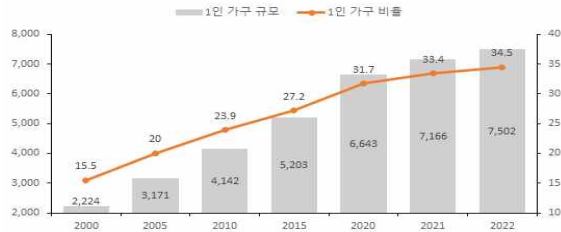
*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여성	0.7	18.1	12.7	9.5	12.7	18.3	15.2	12.7
남성	0.7	18.9	22.0	16.5	17.6	15.1	6.3	3.0

-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197만 4천 가구로, '21년 대비 8.2% 증가함

* 노인 1인 가구 규모(가구) : ('21) 182만 4천 → ('22) 197만 4천

< 1인 가구 규모 및 비율 >



< 노인 1인 가구 >



- **2022년 맞벌이 가구는 584만 6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6.1%**이며, 40대와 50대에서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율(%): (~29세)50.1, (30대) 54.2, (40대) 55.2, (50대) 55.2, (60세 이상) 31.1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3.3%로, '21년과 동일함

- **2022년 한부모 가구는 149만 4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6.9%**이며 감소 추세임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의미함
* 한부모 가구 비율(%): ('16) 8.0 → ('20) 7.3 → ('22) 6.9

- 여성 한부모 가구는 112만 9천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75.6% 차지하고 그 비율이 증가 추세임

* 한부모 가구 구성비(%): ('16) 여성 74.3, 남성 25.7 → ('22) 여성 75.6, 남성 24.4

- **2022년 다문화 가구 가구원은 115만 1천 명으로 '21년 대비 2.8% 증가**했고, 그중 여성 가구원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다문화 가구 가구원(명): ('21) 여성 589,187, 남성 530,080 → ('22) 여성 605,260, 남성 545,744

- **2022년 초혼 건수는 14만 8천 건으로, '21년 대비 0.6% 감소**함

* 초혼 건수(건): ('21) 14만 9천 → ('22) 14만 8천

-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21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함

* 초혼 연령(세): ('21) 여성 31.1, 남성 33.4 → ('22) 여성 31.3, 남성 33.7

-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21년 대비 8.4% 감소**함

* 이혼 건수(건): ('21) 10만 2천 → ('22) 9만 3천

-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6.7%로 가장 높음

* 혼인지속 기간별 구성비(%) (4년 이하) 18.6, (5~9년) 18.0, (10~14년) 14.8, (15~19년) 12.0, (20년 이상) 36.7

20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10년 이후 최고 수준

- 20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10년(52.7%) 대비 7.3%포인트(p)(이하 'p) 상승해 처음으로 60%에 진입함
 - 특히, 30~34세 여성 고용률(68.5%)이 '10년 대비 큰 폭(15.5%p)으로 증가함
 - * 30~34세 고용률(여): ('10) 53.0% → ('22) 68.5%
- 2022년 여성 실업률(3.1%)은 '10년 대비 0.2%p 감소, 남성 실업률(2.7%)은 1.3%p 감소함
 - * 실업률(%): ('10) 여성 3.3, 남성 4.0 → ('22) 여성 3.1 남성 2.7
 -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차이가 18.9%p로, '10년 대비 4.7%p 감소함
 - * 경제활동참가율(%): ('10) 여성 49.6, 남성 73.2, 차이(남-여) 23.6%p → ('22) 여성 54.6, 남성 73.5, 차이(남-여) 18.9%p
- 2022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고용기간 1년 이상) 비율은 남성 57.6%, 여성 53.6%로 '10년 대비 남성 9.6%p, 여성 19.1%p 증가함
 - * 상용근로자 비율(%): ('10) 여성 34.5, 남성 48.0 → ('22) 여성 53.6, 남성 57.6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 46.0%, 남성 30.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4%p 높음
- 2022년 여성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미만인 자) 비율은 22.8%, 남성은 11.8%로 '10년 대비 여성은 17.0%p, 남성은 4.4%p 감소함
 - * 저임금근로자 비율(%): ('10) 남성 16.2, 여성 39.8 → ('22) 남성 11.8, 여성 22.8
- 2022년 여성(18,113원)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25,886원)의 70.0% 수준으로, '10년 대비 8.4%p 개선됨
 - *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수준(%): ('10) 61.6 → ('22) 70.0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여성은 74.5%, 남성은 72.5% 수준으로 '10년 대비 개선됨

(단위 : 원, %, %p)

	여 성				남 성				남성임금 대비 여성 수준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2010	9,300	10,480	6,857	65.4	15,095	16,418	9,658	58.8	61.6
2022	18,113	19,594	14,588	74.5	25,886	27,466	19,903	72.5	70.0
'10년 대비	8,814	9,114	7,731	9.1	10,792	11,048	10,246	13.7	8.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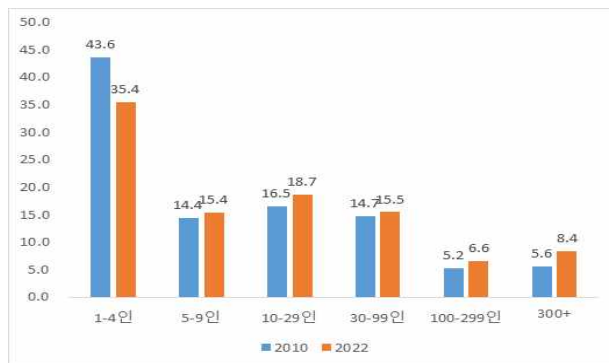
주: 1) 제외산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U.국제 및 외국기관」

2)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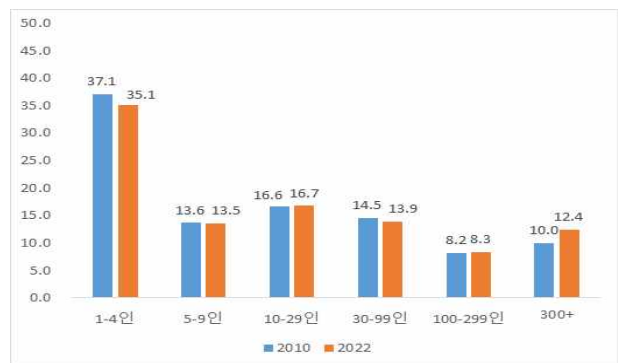
3) 시간당 임금=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총근로시간

- 2022년 여성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8.4%로, '10년(5.6%) 대비 2.8%p 상승함
- 여성 취업자 중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취업 비율은 50.8%로 남성 취업자 중 비율 48.6% 보다 2.2%p 높음

<여성 규모별 취업자 비율>



<남성 규모별 취업자 비율>



III 일·생활 균형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근로자는 '19년 대비 3.4배 증가

- 2022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10만 5천 명) 대비 남성은 약 1만 6천 명, 여성은 약 1만 명 증가함
-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8천 명으로 '19년(2만 2천 명) 대비 1.7배 증가함

< 육아휴직자 현황 >

(단위 : 명, %)

	계	여성	여성비율	남성	남성비율
2019	105,181	82,886	78.8	22,295	21.2
2022	131,129	93,245	71.1	37,884	28.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초회수급자수임

-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만 9천 명으로, '19년(5천 6백 명) 대비 3.4배 증가함
- 남성(29.4%)과 여성(20.9%) 모두 1천 명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사용 비율이 높음
- 2022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남성(17.3%)과 여성(14.4%) 모두 '19년

대비 5.0%p 이상 증가함

*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19) 여성 9.0, 남성 12.2 → ('22) 여성 14.4, 남성 17.3

- 여성은 시차출퇴근제(33.7%), 남성은 탄력근무제(30.7%) 활용률이 가장 높음

IV 경제상황

20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감소

- 20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소득(3,652만 원)은 '21년 대비 큰 폭(9.1%)으로 증가하나, 남성 가구주 가구소득(7,344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여성 가구주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율은 58.5%로 '21년 대비 2.0%p 증가,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14.7%로 전년 대비 1.6%p 감소함
- *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 비율(%): ('21) 56.5 → ('22) 58.5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비율(%): ('21) 16.3 → ('22) 14.7
- 2022년 여성 가구주 가구(2억 5천만 원)와 남성 가구주 가구(5억 2천만 원)의 순자산은 '21년 대비 각각 9.9%, 11.0% 증가함
- *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에 비해 평균 가구원 수가 적고, 가구주 연령이 높은 편
('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원 수 1.7명, 가구주 연령 58.0세, 남성 가구주 가구원 수 2.8명, 가구주 연령 54.2세)

V 사회안전망

2022년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는 303만 1천 명으로 '10년 대비 2.5배 증가

-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10년 대비 6.6%p 증가했고, 유족연금 수급자는 1.8%p 감소함
- *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명):('10) 119만 8천 → ('22) 303만 2천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10) 33.8 → ('22) 37.4, 유족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10) 92.1 → ('22) 90.3
- 20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 비율은 43.9%로, '10년 대비 6.2%p 증가함
- *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성비(%):('10) 여성 37.7, 남성 62.3 → ('22) 여성 43.9, 남성 56.1

- 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10년 대비 여성은 16.7%p, 남성은 7.8%p 증가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10) 여성 57.0, 남성 74.6 → ('22) 여성 73.7, 남성 82.4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35만 9천 명으로 '10년 대비 1.6배 증가함

* 기초생활수급자 수(명): ('10) 145만 8천 → ('22) 235만 9천

-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55.7%로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기초생활수급자 구성비(%): ('10) 여 57.0, 남 43.0 → ('22) 여 55.7, 남 44.3

VI 의사결정

2022년 민간기업(규모 1천 명 이상) 여성 임원 비율은 '18년 대비 1.2배 증가

- 2022년 규모가 1천 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2.4%로, '18년(10.1%) 대비 2.3%p 증가함

* 민간기업(규모 1천명 이상) 여성 임원 규모 및 비율: ('18) 2,626명(10.1%) → ('22) 3,736명(12.4%)

- 2022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3.2%로, '18년 대비 1.4배 증가함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18) 16.2% → ('22) 23.2%

- 2022년 전국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1.5%로, '18년 대비 9.0%p 하락함

* 전국지방선거 투표율: ('18) 60.5% → ('22) 51.5%

VII 여성폭력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2,080건으로 '20년 대비 8.9% 증가

- 2021년 성폭력 검거 건수는 29,013건으로 '20년 대비 8.9%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32,137명으로 198명 감소함

* 성폭력 검거 건수: ('20) 28,137건 → ('21) 29,013건

* 성폭력 검거 인원: ('20) 32,335명 → ('21) 32,137명

- 2021년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349건으로 '20년 대비 482건 감소했고, 불법 촬영물 발생 건수는 '20년 대비 513건 증가함

*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 ('20) 4,831건 → ('21) 4,349건, 불법 촬영물 발생 건수: ('20) 842건 → ('21) 1,355건

- **2021년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0,975명으로 '20년 대비 7.7% 감소했고, 스토킹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20년 대비 12.7% 증가함.**

* 교제 폭력 범죄자 수: ('20) 11,891명 → ('21) 10,975명

스토킹 검거 건수: ('20) 481건 → ('21) 542건

- **2021년 폭력 상담 건수는 86만 건으로 '20년 대비 9.7% 증가했고, 그중 가정폭력 상담이 60%를 차지함**

* 폭력 상담 건수: ('20) 784,200건 → ('21) 859,967건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 475,420건 → ('21) 514,006건

VIII 건강

2021년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년, 남성은 80.6년으로 '10년 대비 3년 이상 증가

- **2021년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년으로, '10년 대비 여성은 3.0년, 남성은 3.8년 증가함**

* 기대수명: ('10)여성 83.6년, 남성 76.8년→ ('21)여성 86.6년, 남성 80.6년

- **2021년 걷기 운동 실천율은 여성은 41.4%, 남성은 37.9%로 여성이 3.5%p 높음**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은 45.4%, 남성은 50.2%로, 남성이 여성보다 4.8%p 높음

- **2021년 일반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검사에서 '우울 증상이 없음'으로 판정 받은 남성은 82.4%, 여성은 76.7%임**

- **2021년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10년 대비 2.1세 상승함**

* 산모 평균 출산 연령: ('10) 31.3세 → ('21) 33.4세

- **2021년 불임 치료 환자는 약 25만 2천 명으로, '17년 대비 20.9% 증가함**
 - 난임 시술 이용자 중 여성 비율은 54.2%로, '17년 대비 4.4%p 감소함

* 불임 치료 환자 수: ('17) 208,703명 → ('21) 252,288명

난임 시술 성별 구성비: ('17) 여성 58.6%, 남성 41.4% → ('21) 여성 54.2%, 남성 45.8%

2022년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20년 대비 감소

- 2022년 기준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여성(23.7%)과 남성(18.2%) 모두에서 '20년 대비 각 1.4%p, 2.9%p 감소함

* (가사분담 실태)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응답비율(%): ('20) 여성 25.1, 남성 21.1

- 2021년 일과 가정생활 중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은 30대 여성(25.4%)과 남성(23.7%)이 가장 높음

- '일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19~29세(33.6%), 남성은 50대(42.9%)에서 가장 높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일 우선	26.3	33.6	22.6	24.7	27.7	23.2
	가정생활 우선	21.1	20.0	25.4	22.8	17.3	21.1
남성	일 우선	38.8	38.4	32.8	37.8	42.9	41.9
	가정생활 우선	16.2	18.8	23.7	16.2	11.4	12.8

I. 인구와 가구

1. 인구

'23년 전체 인구는 약 5,15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

□ '23년 전체 인구 5,155만 8천 명 중 남성 인구는 2,5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함

○ 성별 구성비가 여성 50.1%, 남성 49.9%로 여성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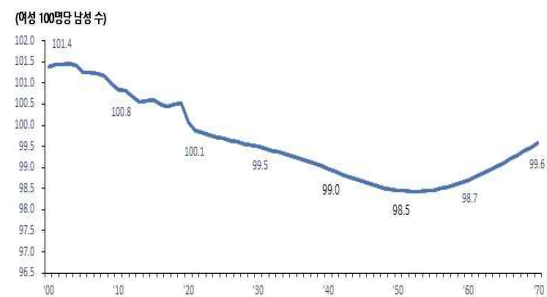
□ '23년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99.8명으로 전년과 같음

○ 성비는 '10년 100.8에서 감소하는 추세임

< 성별 인구 비율 >



< 성비 추이 >



< 인구 추이 >

(단위 : 천 명, %, 명)

	전체	증감률 ¹⁾	여 성	증감률	구성비	남 성	증감률	구성비	성 비 ²⁾
2010	49,554	0.5	24,673	0.6	49.8	24,881	0.4	50.2	100.8
2015	51,015	0.5	25,429	0.5	49.8	25,586	0.6	50.2	100.6
2020	51,836	0.1	25,911	0.4	50.0	25,926	-0.1	50.0	100.1
2021	51,745	-0.2	25,887	-0.1	50.0	25,858	-0.3	50.0	99.9
2022	51,628	-0.2	25,838	-0.2	50.0	25,790	-0.3	50.0	99.8
2023	51,558	-0.1	25,808	-0.1	50.1	25,750	-0.2	49.9	99.8
2030 ³⁾	51,199	-0.1	25,665	-0.1	50.1	25,534	-0.1	49.9	99.5
2040 ³⁾	50,193	-0.3	25,226	-0.3	50.3	24,967	-0.4	49.7	99.0
2050 ³⁾	47,359	-0.8	23,864	-0.8	50.4	23,495	-0.8	49.6	98.5
2060 ³⁾	42,617	-1.2	21,447	-1.2	50.3	21,170	-1.2	49.7	98.7
2070 ³⁾	37,656	-1.2	18,868	-1.3	50.1	18,788	-1.2	49.9	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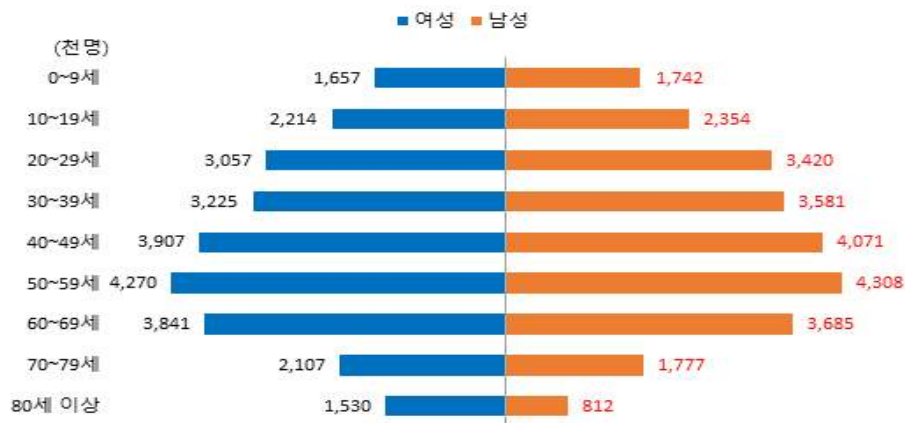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 주 : 1)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2) 성비는 여성 1백 명 당 남성 수임
 3) 중위 추계 기준으로 산정함

'23년 남녀 모두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전년 대비 60세 이상 인구 증가

- '23년 연령대별 인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 50대가 각 16.5%, 1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많음
-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여성 6.3%로 가장 높음
- 60세 이상 남성은 17.1%, 여성은 12.9% 증가함

< '23년 성별·연령대별 인구 >



< 연령대별 인구 >

(단위 : 천 명, %, 여성 1백 명 당 명)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여성	2010	24,673	2,296	3,134	3,329	4,012	4,219	3,382	2,136	1,514	651
	2015	25,429	2,204	2,731	3,173	3,744	4,304	4,075	2,501	1,788	909
	2020	25,911	1,975	2,301	3,308	3,429	4,052	4,276	3,320	1,984	1,265
	2021	25,887	1,874	2,243	3,279	3,332	3,997	4,248	3,566	2,007	1,340
	2022	25,838	1,767	2,220	3,171	3,262	3,964	4,270	3,689	2,055	1,440
	2023	25,808	1,657	2,214	3,057	3,225	3,907	4,270	3,841	2,107	1,530
	구성비	100.0	6.4	8.6	11.8	12.5	15.1	16.5	14.9	8.2	5.9
	'10년 대비	1,135	-639	-920	-272	-787	-312	888	1,705	593	879
남성	2010	24,881	2,473	3,504	3,644	4,253	4,359	3,370	1,954	1,051	272
	2015	25,586	2,337	2,980	3,608	4,020	4,449	4,098	2,356	1,343	396
	2020	25,926	2,080	2,468	3,729	3,745	4,206	4,299	3,157	1,615	626
	2021	25,858	1,973	2,399	3,673	3,649	4,155	4,287	3,394	1,651	677
	2022	25,790	1,858	2,369	3,553	3,593	4,122	4,318	3,519	1,714	747
	2023	25,750	1,742	2,354	3,420	3,581	4,071	4,308	3,685	1,777	812
	구성비	100.0	6.8	9.1	13.3	13.9	15.8	16.7	14.3	6.9	3.2
	'10년 대비	869	-731	-1,150	-224	-672	-288	938	1,731	726	540
성비		99.8	105.2	106.3	111.9	111.1	104.2	100.9	95.9	84.3	53.1
차이(남-여)		-58	85	140	363	356	164	38	-156	-330	-71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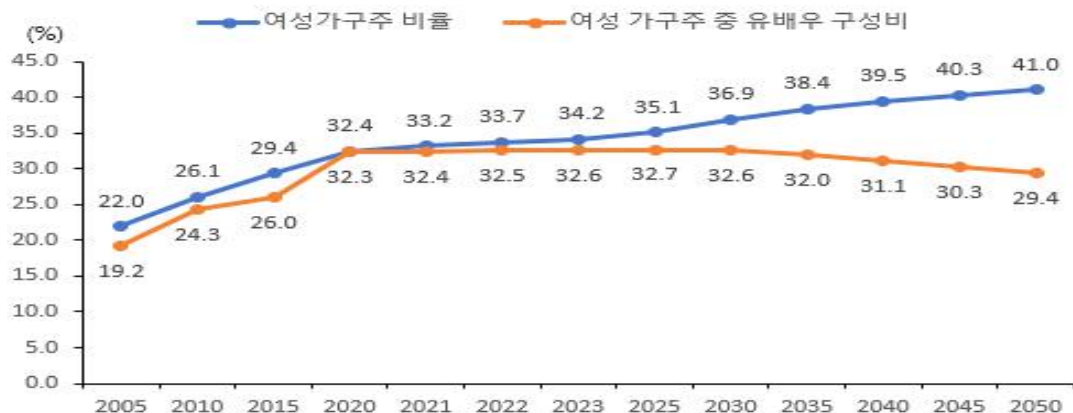
주 : 성비는 여성 1백 명 당 남성 수임

2.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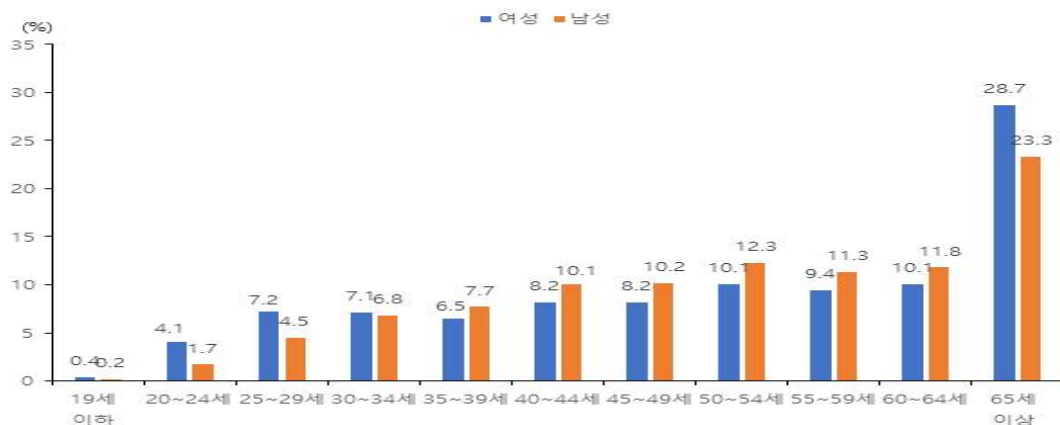
'23년 여성 가구주 가구는 전체의 34.2%로, 전년 대비 0.5%p 증가

- '23년 여성 가구주 가구는 약 746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2%임
 - 여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남성 가구주 가구가 1.9배임
- 남성 가구주 가구 중 유배우 비율은 71.4%로, 대부분을 차지함
 - 여성 가구주 가구 중 유배우 비율은 32.6%로, 남성의 45.7% 수준임
- 성별 가구주 가구 구성비에서 3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고, 35~64세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 남성(23.3%)과 여성(28.7%) 모두 65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 가구주 가구 및 유배우 비율 >



< '23년 연령대별 가구 비율 >



< 혼인상태별 가구 >

(단위 : 천 가구, %)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여성	2005	3,523	23.6	19.2	42.7	14.5
	2010	4,568	23.5	24.3	35.8	16.4
	2015	5,586	23.2	26.0	32.4	18.4
	2020	6,721	24.6	32.3	26.4	16.6
	2021	7,073	25.4	32.4	25.7	16.5
	2022	7,277	25.5	32.5	25.3	16.6
	2023	7,467	25.6	32.6	25.0	16.8
	2025	7,824	25.8	32.7	24.3	17.2
	2030	8,553	26.2	32.6	22.9	18.3
	2035	9,098	27.0	32.0	21.8	19.1
	2040	9,428	28.0	31.1	21.2	19.7
	2045	9,505	28.8	30.3	20.9	20.1
	2050	9,377	30.0	29.4	20.5	20.1
남성	2005	12,515	9.8	84.8	2.2	3.2
	2010	12,926	12.2	81.2	2.4	4.2
	2015	13,427	13.0	79.5	2.4	5.1
	2020	14,009	17.3	74.3	2.3	6.2
	2021	14,205	18.2	73.1	2.3	6.4
	2022	14,302	18.9	72.2	2.4	6.6
	2023	14,367	19.4	71.4	2.4	6.8
	2025	14,485	20.5	69.8	2.5	7.2
	2030	14,627	22.6	66.5	2.7	8.2
	2035	14,612	24.5	63.6	2.9	9.0
	2040	14,438	26.3	60.9	3.4	9.4
	2045	14,068	27.8	58.6	3.9	9.7
	2050	13,472	29.3	56.3	4.6	9.8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 연령대별 가구 >

(단위 : 천 가구, %)

		계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여성	2005	3,523	1.1	6.5	8.2	7.3	7.8	9.6	10.6	8.6	7.6	7.7	25.0
	2010	4,568	0.9	4.7	8.0	7.5	8.6	10.0	10.7	10.5	7.8	6.9	24.3
	2015	5,586	0.6	4.3	6.0	7.6	8.0	9.6	10.5	10.5	10.1	7.6	25.1
	2020	6,721	0.6	4.6	7.0	6.4	7.6	8.0	9.6	10.0	10.0	9.6	26.6
	2021	7,073	0.5	4.7	7.4	6.7	7.3	8.0	9.0	10.0	9.5	9.9	27.0
	2022	7,277	0.5	4.4	7.3	6.9	6.8	8.2	8.6	10.1	9.4	9.9	27.8
	2023	7,467	0.4	4.1	7.2	7.1	6.5	8.2	8.2	10.1	9.4	10.1	28.7
	2025	7,824	0.4	3.5	6.9	7.4	6.4	7.7	7.9	9.6	9.9	9.6	30.7
	2030	8,553	0.4	3.0	5.1	7.1	7.1	6.4	7.7	8.3	9.9	9.8	35.2
	2035	9,098	0.3	2.9	4.5	5.4	6.9	7.1	6.4	8.2	8.8	10.0	39.6
	2040	9,428	0.2	2.2	4.4	4.9	5.4	7.0	7.2	6.9	8.8	8.9	44.0
	2045	9,505	0.3	1.5	3.5	5.0	5.0	5.6	7.2	7.9	7.6	9.2	47.1
	2050	9,377	0.3	1.7	2.5	4.1	5.3	5.3	5.9	8.1	8.9	8.1	49.9
남성	2005	12,515	0.3	1.5	5.1	11.2	14.0	15.2	14.6	10.9	8.5	6.8	11.7
	2010	12,926	0.3	1.5	4.7	9.0	12.5	13.8	14.1	13.2	9.4	7.3	14.0
	2015	13,427	0.2	1.7	3.7	7.8	10.2	12.4	13.2	13.2	12.1	8.6	16.9
	2020	14,009	0.2	1.8	4.3	6.3	9.3	10.0	11.9	12.4	12.3	11.0	20.3
	2021	14,205	0.2	1.8	4.6	6.4	8.7	10.1	11.3	12.4	11.8	11.4	21.2
	2022	14,302	0.2	1.8	4.6	6.6	8.1	10.2	10.7	12.4	11.6	11.6	22.2
	2023	14,367	0.2	1.7	4.5	6.8	7.7	10.1	10.2	12.3	11.3	11.8	23.3
	2025	14,485	0.2	1.5	4.3	7.0	7.3	9.3	9.8	11.7	11.6	11.3	25.8
	2030	14,627	0.2	1.3	3.4	6.4	7.9	7.5	9.3	9.8	11.3	11.0	31.8
	2035	14,612	0.1	1.4	3.0	5.0	7.2	8.1	7.6	9.5	9.7	11.0	37.3
	2040	14,438	0.1	1.1	3.1	4.5	5.5	7.5	8.4	7.9	9.6	9.6	42.6
	2045	14,068	0.1	0.8	2.5	4.6	5.0	5.8	7.9	9.0	8.2	9.7	46.2
	2050	13,472	0.2	0.9	1.8	3.8	5.2	5.4	6.3	8.7	9.6	8.5	49.7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3. 1인 가구

'22년 1인 가구는 '21년 대비 4.7% 증가, 남성 30대, 여성 60대 가장 많아

- '22년 1인 가구는 총 750만 2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34.5%임
 - '21년 대비 33만 6천 가구(4.7%) 증가함
 - * 1인 가구 비율(%) : ('21) 33.4 → ('22) 34.5
 - 남녀 1인 가구 수는 각 375만 가구로 비슷함
- 연령대별로 여성 1인 가구는 60대(18.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18.1%), 70대(15.2%) 순임
 - 남성 1인 가구는 30대(22.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18.9%), 50대(17.6%) 순임
-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197만 4천 가구로, '21년 대비 8.2% 증가함
 -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138만 5천 가구로 전체 노인 1인 가구의 70.2%를 차지함

< 1인 가구 규모 및 비율 >

(단위 : 천 가구, %)



< 노인 1인 가구 >

(단위 : 천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년: 전통적 방식, 2015-2022년: 등록센서스 방식)

< 가구원수별 가구 >

(단위 : 천 가구, %, %p)

	일반가구	1인	비율	2인	3인	4인 이상
2000	14,312	2,224	15.5	2,731	2,987	6,369
2005	15,887	3,171	20.0	3,521	3,325	5,871
2010	17,339	4,142	23.9	4,205	3,696	5,296
2015	19,111	5,203	27.2	4,994	4,101	4,813
2020	20,927	6,643	31.7	5,865	4,201	4,218
2021	21,448	7,166	33.4	6,077	4,170	4,036
2022	21,774	7,502	34.5	6,261	4,185	3,826
구성비	100.0	34.5	-	28.8	19.2	17.6
'00년 대비	7,462	5,278	19.0	3,530	1,198	-2,543
'21년 대비	326	336	1.1	184	15	-21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년: 전통적 방식, 2015-2022년: 등록센서스 방식)

주 :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의미함

< 연령대별 1인 가구 >

(단위 : 천 가구, %, %p)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노인 1인가구
여성	2015	2,610	1.1	15.4	13.1	11.8	15.3	15.6	17.6	10.0	925
	2018	2,942	1.0	16.2	12.1	10.8	14.7	17.1	17.0	11.1	1,060
	2019	3,094	1.0	17.2	12.0	10.4	14.1	17.3	16.5	11.5	1,114
	2020	3,339	1.2	18.5	12.0	9.9	13.3	17.6	16.0	11.5	1,194
	2021	3,582	0.8	18.6	12.4	9.7	13.0	18.3	15.5	11.9	1,294
	2022	3,751	0.7	18.1	12.7	9.5	12.7	18.3	15.2	12.7	1,385
	'15년 대비	1,141	-0.4	2.7	-0.4	-2.3	-2.6	2.7	-2.4	2.7	460
	'21년 대비	169	-0.1	-0.5	0.3	-0.2	-0.3	0.0	-0.3	0.8	91
남성	2015	2,593	1.1	18.7	23.5	20.9	18.4	10.1	5.3	2.0	298
	2018	2,906	1.0	18.7	21.9	18.8	18.7	12.6	5.9	2.5	385
	2019	3,054	0.9	19.2	21.7	18.0	18.4	13.0	6.0	2.6	419
	2020	3,304	1.1	19.7	21.6	17.3	18.0	13.6	6.0	2.6	466
	2021	3,584	0.7	19.5	21.8	16.8	17.8	14.5	6.1	2.8	530
	2022	3,751	0.7	18.9	22.0	16.5	17.6	15.1	6.3	3.0	589
	'15년 대비	1,158	-0.4	0.2	-1.5	-4.4	-0.8	5.0	1.0	1.0	291
	'21년 대비	167	0.0	-0.6	0.2	-0.3	-0.2	0.6	0.2	0.2	5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년: 전통적 방식, 2015-2022년: 등록센서스 방식)

주 : 노인 1인 가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의미함

4. 맞벌이 가구

'22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6.1%로, '21년 대비 0.2%p 증가

□ '22년 맞벌이 가구 수는 584만 6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6.1%임

○ '21년 대비 유배우 맞벌이 가구 비율 0.2%p 증가했음

* 맞벌이 가구 비율(%) : ('21) 45.9 → ('22) 46.1

□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40대와 50대에서 각 55.2%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31.1%로 가장 낮음

○ '21년 대비 15세~29세 맞벌이 비율 상승 폭(7.3%p)이 가장 큼

< 맞벌이 가구 현황 >

(단위 : 천 가구, %)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5	유배우가구	12,143	201	2,131	3,294	3,314	3,205
	맞벌이가구 ¹⁾	5,370	73	927	1,683	1,701	986
	비율 ²⁾	44.2	36.6	43.5	51.1	51.3	30.8
2016	유배우가구	12,214	188	2,057	3,226	3,354	3,391
	맞벌이가구 ¹⁾	5,535	72	932	1,698	1,788	1,046
	비율 ²⁾	45.3	38.2	45.3	52.6	53.3	30.8
2017	유배우가구	12,289	179	1,982	3,157	3,370	3,601
	맞벌이가구 ¹⁾	5,446	65	932	1,642	1,767	1,041
	비율 ¹⁾	44.3	36.3	47.0	52.0	52.4	28.9
2018	유배우가구	12,368	174	1,909	3,077	3,389	3,819
	맞벌이가구 ¹⁾	5,684	66	945	1,668	1,851	1,154
	비율 ²⁾	46.0	37.9	49.5	54.2	54.6	30.2
2019	유배우가구	12,472	172	1,831	3,011	3,401	4,058
	맞벌이가구 ¹⁾	5,680	66	917	1,634	1,835	1,229
	비율 ²⁾	45.5	38.6	50.1	54.3	53.9	30.3
2020	유배우가구	12,609	172	1,762	2,972	3,391	4,311
	맞벌이가구 ¹⁾	5,675	65	907	1,586	1,811	1,306
	비율 ²⁾	45.0	37.9	51.5	53.3	53.4	30.3
2021	유배우가구	12,687	170	1,696	2,930	3,364	4,528
	맞벌이가구 ¹⁾	5,826	73	906	1,605	1,857	1,386
	비율 ²⁾	45.9	42.8	53.4	54.8	55.2	30.6
2022	유배우가구	12,691	157	1,604	2,879	3,339	4,712
	맞벌이가구 ¹⁾	5,846	79	870	1,588	1,844	1,466
	비율 ²⁾	46.1	50.1	54.2	55.2	55.2	31.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 1)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2)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 가구) × 100

'22년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3.3%로, '21년과 동일함

-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 13~17세(59.4%), 7~12세(55.6%), 6세 이하(47.5%) 순임
 - 13~17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1년 대비 0.9%p 하락함
- 자녀수가 적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 자녀수가 1명(53.9%), 2명(53.3%), 3명 이상(49.5%)인 순으로 높음
 -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 비율은 49.5%로, '21년 대비 1.5%p 증가함

< 막내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1) 2)} >

(단위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 ³⁾	6세 이하	7~12세	13~17세
2015	47.2	38.1	51.6	57.5
2016	48.5	39.7	52.8	58.4
2017	48.7	41.7	51.2	57.9
2018	51.0	44.2	54.2	59.4
2019	51.5	44.6	54.8	59.5
2020	51.3	45.0	54.0	58.3
2021	53.3	47.3	55.3	60.3
2022	53.3	47.5	55.6	59.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 1)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3) 비율 =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인 맞벌이 가구 /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인 유배우 가구) × 100

< 자녀 수별 맞벌이 가구 비율^{1) 2)} >

(단위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 ³⁾	1명	2명	3명 이상
2015	47.2	47.6	47.7	42.2
2016	48.5	48.9	48.9	44.4
2017	48.7	49.5	48.8	43.5
2018	51.0	51.3	51.3	47.9
2019	51.5	52.0	51.8	46.9
2020	51.3	52.1	51.4	46.0
2021	53.3	54.3	53.3	48.0
2022	53.3	53.9	53.3	49.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 1) 막내 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3) 비율 =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인 맞벌이 가구 /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인 유배우 가구) × 100

5. 한부모 가구 및 미혼부모 인구

'22년 한부모 가구는 약 149만 4천 가구로, 그중 여성 한부모 가구가 75.6%

□ '22년 한부모 가구는 일반 가구* 중 6.9%로, '21년 대비 0.1%p 감소함

*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의미함

○ 일반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16년 이후 감소 추세임

* 한부모 가구 비율(%) : ('16) 8.0 → ('21) 7.0 → ('22) 6.9

□ 여성 한부모 가구는 약 112만 9천 가구로, '21년 대비 약 7천 가구 감소함

○ 남성 한부모 가구는 약 36만 5천 가구로, 여성 한부모 가구의 32% 수준임

< 한부모 가구 변화 추이 >



< 한부모 가구 현황 >

(단위 : 천 가구, %, %p)

	한부모 가구	일반 가구 ¹⁾ 중 비율 ²⁾	여성 한부모 가구	구성비	남성 한부모 가구	구성비	구성비 차이 (여-남)
2016	1,540	8.0	1,144	74.3	396	25.7	48.6
2017	1,533	7.8	1,141	74.4	392	25.6	48.8
2018	1,539	7.7	1,148	74.6	391	25.4	49.1
2019	1,529	7.5	1,145	74.9	384	25.1	49.7
2020	1,533	7.3	1,152	75.2	381	24.8	50.3
2021	1,510	7.0	1,136	75.2	374	24.8	50.5
2022	1,494	6.9	1,129	75.6	365	24.4	51.2
'16년 대비	-46	-1.1	-15	1.3	-31	-1.3	2.6
'21년 대비	-16	-0.1	-7	0.4	-9	-0.4	0.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 1)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의미함

2) 비율은 일반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임

- '22년 미혼모 인구는 약 2만 1백 명, 미혼부 인구는 약 5천 9백 명임
- 미혼모 및 미혼부 인구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연령대별로는 미혼모(36.2%)와 미혼부(42.0%) 모두 40대가 가장 많음
- 50세 이상 미혼부와 40대 미혼모 인구의 상승폭이 '21년 대비 각 0.8%p로 가장 큼

< 미혼모 및 미혼부 인구 >

(단위 : 명, %, %p)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혼모	2015	24,487	1.4	20.2	36.1	31.4	10.9
	2017	22,065	1.7	19.2	36.1	32.4	10.6
	2018	21,254	1.5	19.2	35.7	33.1	10.5
	2019	20,761	1.3	19.2	35.5	33.7	10.4
	2020	20,572	1.1	18.7	34.9	34.9	10.5
	2021	20,345	0.9	17.9	34.9	35.4	10.9
	2022	20,132	0.8	16.6	35.1	36.2	11.3
	'15년 대비	-4,355	-0.6	-3.6	-1.0	4.8	0.4
	'21년 대비	-213	-0.1	-1.3	0.2	0.8	0.4
미혼부	2015	10,601	0.8	8.6	29.7	43.3	17.6
	2017	8,424	0.1	8.1	25.6	44.8	21.4
	2018	7,768	0.1	7.6	24.5	44.7	23.1
	2019	7,082	0.0	7.1	23.7	43.9	25.2
	2020	6,673	0.0	6.7	22.5	43.3	27.5
	2021	6,307	0.0	5.9	23.3	42.3	28.5
	2022	5,889	0.0	5.1	23.7	42.0	29.3
	'15년 대비	-4,712	-0.8	-3.5	-6.0	-1.3	11.7
	'21년 대비	-418	0.0	-0.8	0.4	-0.3	0.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 미혼모 및 미혼부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를 의미함

6. 외국인 · 다문화 가구원

'22년 외국인 인구는 약 175만 2천 명으로, '21년 대비 6.2% 증가

□ '22년 외국인* 여성 인구는 약 78만 4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44.7%를 차지함

* 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하며, 기준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외국인 인구는 '21년 대비 약 10만 2천 명 증가했고, 여성은 5.4%, 남성은 6.9%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30대 비율이 남성 30.4%, 여성 24.1%로 가장 높음

○ 남녀 모두 30대~50대 비율은 '21년 대비 감소했고, 60대 이상 비율은 증가함

< 연령대별 외국인 인구 >

(단위 : 명, %, %p)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2015	575,049	3.2	3.0	27.2	20.3	17.7	18.4	10.1
	2016	598,291	3.5	3.3	26.9	21.2	16.9	17.7	10.6
	2017	633,584	3.3	3.3	26.6	22.6	16.4	16.7	11.1
	2018	705,920	3.6	3.6	26.4	23.5	15.9	16.3	10.7
	2019	761,510	4.2	3.9	25.8	23.8	15.7	15.8	10.9
	2020	753,024	4.1	3.0	23.5	25.1	15.7	16.2	12.4
	2021	743,460	4.4	3.0	23.0	25.1	15.6	16.4	12.6
	2022	783,562	4.3	3.8	23.4	24.1	15.5	15.7	13.2
	'15년 대비	208,513	1.1	0.8	-3.8	3.8	-2.2	-2.7	3.1
	'21년 대비	40,102	-0.1	0.8	0.4	-1.0	-0.1	-0.7	0.6
남성	2015	788,663	2.5	2.0	28.6	28.8	18.0	13.4	6.7
	2016	815,467	2.7	2.2	28.3	29.1	17.5	13.1	7.0
	2017	845,663	2.5	2.2	28.0	30.1	17.2	12.6	7.4
	2018	945,641	2.7	2.6	28.5	30.1	16.7	12.4	7.0
	2019	1,017,408	3.3	2.7	27.8	29.7	16.8	12.6	7.2
	2020	942,619	3.4	2.2	25.2	30.9	17.0	13.1	8.3
	2021	906,507	3.7	2.3	23.2	30.8	17.5	14.0	8.5
	2022	968,784	3.6	2.9	23.7	30.4	17.1	13.5	8.8
	'15년 대비	180,121	1.1	0.9	-4.9	1.6	-0.9	0.1	2.1
	'21년 대비	62,277	-0.1	0.6	0.5	-0.4	-0.4	-0.5	0.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2년 다문화 가구* 가구원은 약 115만 1천 명으로 '21년 대비 2.8% 증가했고, 그중 여성 가구원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다문화가구 :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여성과 남성 가구원 수는 '21년 대비 각 약 1만 6천 명씩 증가함

□ 남성의 경우 내국인(출생) 가구원 수가 약 43만 9천 명으로 80.5%를 차지함

○ 여성 가구원 비중은 내국인(출생)(44.3%), 내국인(귀화)(29.2%), 외국인(결혼 이민자)(22.5%) 순임

< 다문화 가구원 >

(단위 : 명, %, %p)

		계	내국인 (출생) ¹⁾	내국인 (귀화) ²⁾	외국인 (결혼이민자) ³⁾	외국인(기타) ⁴⁾
여성	2015	468,406	45.7	25.2	25.3	3.9
	2016	507,100	44.6	24.9	25.7	4.8
	2017	505,918	43.4	26.5	25.6	4.5
	2018	528,537	43.8	26.4	25.2	4.5
	2019	556,194	43.8	26.5	25.0	4.7
	2020	573,886	44.6	27.4	24.0	4.0
	2021	589,187	44.3	28.3	23.3	4.0
	2022	605,260	44.3	29.2	22.5	4.0
	'15년 대비 ⁵⁾	136,854	-1.4	4.1	-2.7	0.0
남성	'21년 대비 ⁵⁾	16,073	-0.1	0.9	-0.8	0.0
	2015	419,398	83.2	7.4	5.9	3.4
	2016	456,074	80.8	7.1	6.2	5.8
	2017	457,883	80.7	7.5	6.7	5.2
	2018	479,983	80.5	7.5	6.8	5.2
	2019	506,229	80.2	7.3	6.8	5.6
	2020	519,342	81.4	7.8	6.8	4.0
	2021	530,080	81.0	8.1	6.9	4.0
	2022	545,744	80.5	8.3	7.1	4.0
	'15년 대비 ⁵⁾	126,346	-2.7	1.0	1.2	0.6
	'21년 대비 ⁵⁾	15,664	-0.5	0.2	0.2	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 1) 내국인(출생) : 출생, 현재국적 한국(자녀 또는 한국인배우자 등)

2)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3)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4)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5) 통계청 계산방식과 달라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22년 다문화 대상자는 약 39만 8천 명으로, 여성이 78.8%를 차지함
○ 다문화 대상자 수는 '15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여성은 32.7%, 남성은 51.2% 증가함

□ 국적별로 여성은 중국(한국계)(28.4%), 베트남(26.1%), 중국(19.4%) 순으로 많고, 남성은 중국(한국계)(46.5%), 중국(17.4%) 순으로 많음

< 국적별¹⁾ 다문화 대상자 >

(단위 : 명, %, %p)

	2015				2022				'15년 대비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p	남성	%p
다문화 대상자 ²⁾	236,125	100.0	55,905	100.0	313,280	100.0	84,525	100.0	77,155	0.0	28,620	0.0
중국 ³⁾	49,127	20.8	10,068	18.0	60,884	19.4	14,749	17.4	11,757	-1.4	4,681	-0.6
중국(한국계)	73,033	30.9	29,542	52.8	89,062	28.4	39,288	46.5	16,029	-2.5	9,746	-6.3
대만	2,205	0.9	2,056	3.7	4,152	1.3	3,427	4.1	1,947	0.4	1,371	0.4
일본	10,211	4.3	1,110	2.0	12,976	4.1	1,430	1.7	2,765	-0.2	320	-0.3
몽골	3,027	1.3	200	0.4	3,817	1.2	429	0.5	790	-0.1	229	0.1
베트남	60,277	25.5	1,211	2.2	81,889	26.1	4,956	5.9	21,612	0.6	3,745	3.7
필리핀	16,941	7.2	503	0.9	20,272	6.5	1,207	1.4	3,331	-0.7	704	0.5
태국	2,931	1.2	116	0.2	7,665	2.4	299	0.4	4,734	1.2	183	0.2
인도네시아	587	0.2	150	0.3	1,070	0.3	123	0.1	483	0.1	-27	-0.2
캄보디아	6,725	2.8	96	0.2	8,620	2.8	737	0.9	1,895	0	641	0.7
미얀마	130	0.1	79	0.1	334	0.1	108	0.1	204	0	29	0
스리랑카	77	0.0	278	0.5	92	0.0	360	0.4	15	0	82	-0.1
파키스탄	108	0.0	1,112	2.0	222	0.1	1,336	1.6	114	0.1	224	-0.4
방글라데시	82	0.0	509	0.9	209	0.1	536	0.6	127	0.1	27	-0.3
네팔	1,089	0.5	265	0.5	1,148	0.4	306	0.4	59	-0.1	41	-0.1
우즈베키스탄	2,212	0.9	143	0.3	3,181	1.0	421	0.5	969	0.1	278	0.2
카자흐스탄	275	0.1	16	0.0	708	0.2	66	0.1	433	0.1	50	0.1
러시아 ⁴⁾	1,366	0.6	157	0.3	2,546	0.8	313	0.4	1,180	0.2	156	0.1
미국	1,787	0.8	3,481	6.2	5,040	1.6	5,983	7.1	3,253	0.8	2,502	0.9
캐나다	262	0.1	1,027	1.8	1,680	0.5	2,055	2.4	1,418	0.4	1,028	0.6
기타	3,673	1.6	3,786	6.8	7,713	2.5	6,396	7.6	4,040	0.9	2,610	0.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 1) 국적은 내국인(귀화)의 이전국적, 외국인(결혼이민자)의 현재국적으로 집계

2) 다문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내국인(귀화)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국적회복자 제외)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F-2-1, F-5-2), 결혼이민(F-6-1~3)인 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3)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을 말함

4) 러시아인은 한국계 러시아인을 제외한 러시아인을 말함

7. 혼인과 이혼

'22년 초혼 건수는 약 14만 8천 건으로, '21년 대비 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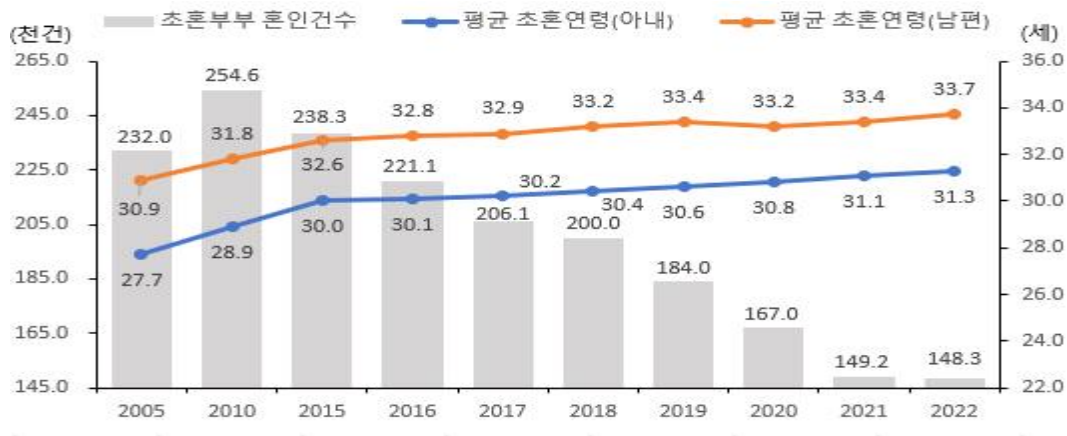
□ '22년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는 '21년(14만 9천 건) 대비 약 900건 감소함

* 초혼부부 혼인 건수(건) : ('21) 14만 9천 → ('22) 14만 8천

□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21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함

○ '22년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9.4%로, '05년 이후 증가 추세임

<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



<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

(단위 : 세, 천 건, %, %p)

	평균 초혼연령		혼인 건수	여성 연상	구성비	동갑	구성비	남성 연상	구성비
	여성	남성							
2005	27.7	30.9	232.0	28.2	12.1	35.0	15.1	168.9	72.8
2010	28.9	31.8	254.6	37.9	14.9	40.8	16.0	175.9	69.1
2015	30.0	32.6	238.3	38.9	16.3	38.2	16.0	161.1	67.6
2016	30.1	32.8	221.1	36.2	16.3	35.2	15.9	149.8	67.7
2017	30.2	32.9	206.1	34.8	16.9	32.8	15.9	138.5	67.2
2018	30.4	33.2	200.0	34.4	17.2	31.5	15.8	134.0	67.0
2019	30.6	33.4	184.0	32.3	17.5	28.9	15.7	122.8	66.8
2020	30.8	33.2	167.0	30.9	18.5	27.1	16.2	109.1	65.3
2021	31.1	33.4	149.2	28.6	19.2	24.8	16.6	95.8	64.2
2022	31.3	33.7	148.3	28.8	19.4	24.1	16.2	95.4	64.4
'05년 대비	3.6	2.8	-83.7	0.6	7.3	-10.9	1.1	-73.5	-8.4
'21년 대비	0.2	0.3	-0.9	0.2	0.2	-0.7	-0.4	-0.4	0.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 초혼부부의 혼인건수임

- '22년 혼인 중 여성 재혼 비율은 18.3%로, '15년 대비 0.9%p 증가함
- 혼인 종류별로 보면 여성 초혼-남성 초혼이 7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성 재혼-남성 재혼이 12.3%임
- 여성 초혼-남성 초혼, 여성 재혼-남성 초혼은 '15년 대비 각 1.3%p, 0.1%p 감소했고, 여성 재혼-남성 재혼은 0.8%p 증가함

< 혼인 종류별 구성비 >

(단위 : %, %p)

		혼인종류	남편의 혼인종류			
			계	초혼	재혼	미상
아내의 혼인종류	2015	계	100.0	84.7	15.3	0.0
		초혼	82.5	78.7	3.9	0.0
		재혼	17.4	6.0	11.5	0.0
		미상	0.0	0.0	0.0	0.0
	2022	계	100.0	83.5	16.3	0.2
		초혼	81.4	77.4	3.9	0.1
		재혼	18.3	5.9	12.3	0.1
		미상	0.4	0.2	0.1	0.0
'15년 대비		계	-	-1.2	1.0	0.2
		초혼	-1.1	-1.3	0.0	0.1
		재혼	0.9	-0.1	0.8	0.1
		미상	0.4	0.2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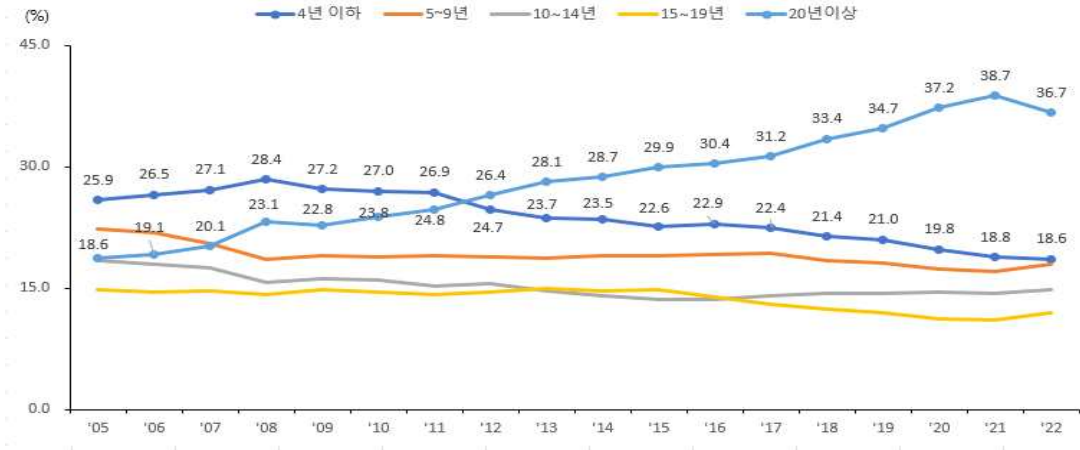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2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3천 건으로, '21년 대비 8.4% 감소

□ '22년 이혼 건수는 '21년(10만 2천 건) 대비 8천 건 이상 감소함

○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36.7%로 가장 많음

<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



< 이혼 건수 및 혼인지속 기간별 현황 >

(단위 : 천 건, %, %p)

	이혼건수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4년 이하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2005	128.0	25.9	22.3	18.4	14.8	18.6
2006	124.5	26.5	21.9	18.0	14.5	19.1
2007	124.1	27.1	20.5	17.5	14.7	20.1
2008	116.5	28.4	18.6	15.7	14.1	23.1
2009	124.0	27.2	19.1	16.1	14.8	22.8
2010	116.9	27.0	18.8	15.9	14.5	23.8
2011	114.3	26.9	19.0	15.2	14.2	24.8
2012	114.3	24.7	18.9	15.5	14.6	26.4
2013	115.3	23.7	18.7	14.6	14.9	28.1
2014	115.5	23.5	19.0	14.1	14.7	28.7
2015	109.2	22.6	19.1	13.6	14.8	29.9
2016	107.3	22.9	19.2	13.7	13.9	30.4
2017	106.0	22.4	19.3	14.0	13.1	31.2
2018	108.7	21.4	18.5	14.3	12.5	33.4
2019	110.8	21.0	18.0	14.4	11.9	34.7
2020	106.5	19.8	17.3	14.5	11.1	37.2
2021	101.7	18.8	17.1	14.3	11.1	38.7
2022	93.2	18.6	18.0	14.8	12.0	36.7
'05년 대비	-34.8	-7.3	-4.3	-3.6	-2.8	18.1
'21년 대비	-8.5	-0.2	0.9	0.5	0.9	-2.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 법적인 결혼(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임

II. 노동시장

8.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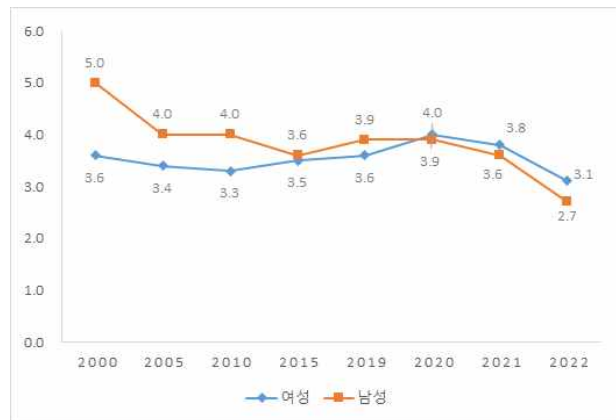
'22년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차이가 18.9%p로, '10년 대비 4.7%p 감소

- '2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3.5%, 여성 54.6%로, '10년 대비 남성 0.3%p, 여성 5.0%p 상승함
 - 참가율의 남녀 차이는 '10년 23.6%p에서 '22년 18.9%p로 4.7%p 감소함
- 여성 실업률(3.1%)은 '10년 대비 0.2%p 감소, 남성 실업률(2.7%)은 1.3%p 감소함
 - '00년 남성 실업률(5.0%)이 여성 실업률(3.6%) 보다 높았으나, '20년부터 여성(4.0%)의 실업률이 남성(3.9%)보다 높아짐

<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 실업률 추이 >



< 참가율 및 실업률 >

(단위 : %, %p)

	경제활동참가율 ¹⁾				실업률 ²⁾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2000	61.2	48.8	74.4	25.6	4.4	3.6	5.0	1.4
2005	62.2	50.3	74.8	24.5	3.7	3.4	4.0	0.6
2010	61.1	49.6	73.2	23.6	3.7	3.3	4.0	0.7
2015	62.8	51.9	74.1	22.2	3.6	3.5	3.6	0.1
2019	63.3	53.5	73.5	20.0	3.8	3.6	3.9	0.3
2020	62.5	52.8	72.6	19.8	4.0	4.0	3.9	-0.1
2021	62.8	53.3	72.6	19.3	3.7	3.8	3.6	-0.2
2022	63.9	54.6	73.5	18.9	2.9	3.1	2.7	-0.4
'00년 대비	2.7	5.8	-0.9	-6.7	-1.5	-0.5	-2.3	-1.8
'21년 대비	1.1	1.3	0.9	-0.4	-0.8	-0.7	-0.9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9. 고용률

'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여성 60.0%로, '10년 이후 최고 수준

- '22년 15세~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10년(52.7%) 대비 7.3%p 상승해 처음으로 60%에 진입함
 - 15~64세 남녀 고용률 차이는 '10년 21.3%p에서 '22년 16.9%p로 감소함
- 15세 이상 고용률은 남성이 71.5%, 여성이 52.9%로, '10년 대비 각 1.2%p, 5.0%p 상승함
 - 15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0년 22.4%p에서 '22년 18.6%p로 감소함

< 15세 이상 고용률 추이 >



< 15~64세 고용률 추이 >



< 고용률 >

(단위 : %, %p)

	15세 이상 고용률 ¹⁾				15~64세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2000	58.5	47.0	70.8	23.8	61.5	50.1	73.2	23.1
2005	59.9	48.6	71.9	23.3	63.7	52.6	75.0	22.4
2010	58.9	47.9	70.3	22.4	63.4	52.7	74.0	21.3
2015	60.5	50.1	71.4	21.3	65.9	55.7	75.9	20.2
2019	60.9	51.6	70.7	19.1	66.8	57.8	75.7	17.9
2020	60.1	50.7	69.8	19.1	65.9	56.7	74.8	18.1
2021	60.5	51.2	70.0	18.8	66.5	57.7	75.2	17.5
2022	62.1	52.9	71.5	18.6	68.5	60.0	76.9	16.9
'00년 대비	3.6	5.9	0.7	-5.2	7.0	9.9	3.7	-6.2
'21년 대비	1.6	1.7	1.5	-0.2	2.0	2.3	1.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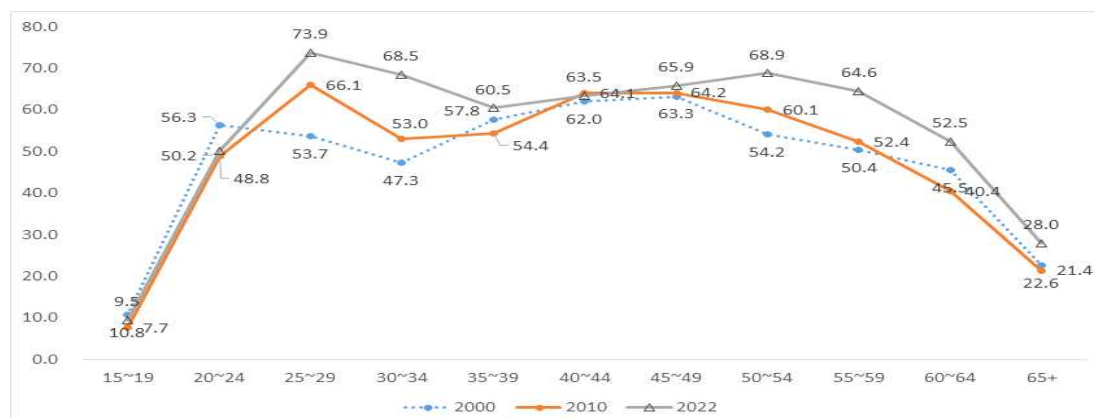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2년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등에 의한 M자형 특징을 유지

- '22년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73.9%), 50대 초반(68.9%), 30대 초반(68.5%) 순으로 높은 반면, 30대 후반(60.5%)은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30대 초반 고용률(68.5%)이 '10년 대비 큰 폭(15.5%p) 증가했고, 다음으로 50대 후반(12.2%p), 60대 초반(12.1%p) 순으로 상승폭이 큼
- 여성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M자형 경향이 있음
- 고용률 저점이 '10년 30대 초반(53.0%)에서 '22년 30대 후반(60.5%)으로 변함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단위 : %, %p)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0	47.0	10.8	56.3	53.7	47.3	57.8	62.0	63.3	54.2	50.4	45.5	22.6
2005	48.6	9.0	57.2	63.1	48.6	57.3	64.1	61.7	57.5	48.4	42.9	22.3
2010	47.9	7.7	48.8	66.1	53.0	54.4	64.1	64.2	60.1	52.4	40.4	21.4
2015	50.1	8.8	50.8	68.5	59.6	54.2	62.9	68.6	66.0	57.3	47.5	22.7
2017	50.8	9.3	49.7	69.6	61.0	58.1	61.8	69.7	66.3	59.6	48.4	23.5
2018	50.9	8.5	48.5	70.9	62.5	59.2	62.2	68.7	66.8	60.4	47.2	24.0
2019	51.6	8.4	46.7	71.1	64.6	59.9	62.7	67.4	68.0	61.7	49.1	25.8
2020	50.7	7.5	44.1	68.7	64.5	58.6	61.4	66.0	65.5	60.6	50.1	26.9
2021	51.2	8.7	47.3	70.9	65.7	57.5	61.5	66.3	67.1	61.2	49.7	27.4
2022	52.9	9.5	50.2	73.9	68.5	60.5	63.5	65.9	68.9	64.6	52.5	28.0
'00년 대비	5.9	-1.3	-6.1	20.2	21.2	2.7	1.5	2.6	14.7	14.2	7.0	5.4
'21년 대비	1.7	0.8	2.9	3.0	2.8	3.0	2.0	-0.4	1.8	3.4	2.8	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2년 여성 상용근로자(고용기간 1년 이상) 비율은 53.6%로, '10년 대비 19.1%p 증가

- '22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성 57.6%, 여성 53.6%로, '10년 대비 남성 9.6%p, 여성 19.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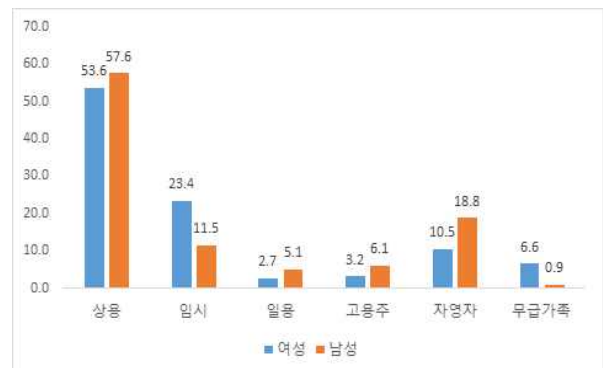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9.7%로 남성(74.1%) 대비 5.6%p 높음
- 상용근로자* 비율의 남녀 차이는 '10년 13.5%p에서, '22년 4.0%p로 줄어듦
- 여성 임시근로자 비율은 23.4%로 '10년 대비 6.6%p 감소했으나, 남성 (11.5%) 대비 2배 높음
-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0년 대비 남녀 모두 감소했으나, 고용주 비율은 남성이 2.9%p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여성이 5.7%p 높음

< 임금근로자 비율 >



< '22년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

(단위 : %, %p)

		임금 근로자	상 용	임 시	일 용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여성	2000	61.5	19.2	28.4	13.9	38.5	3.0	16.2	19.3
	2005	67.2	25.7	30.2	11.3	32.8	3.5	15.3	13.9
	2010	72.9	34.5	30.0	8.4	27.1	3.3	12.9	10.9
	2015	76.4	43.1	27.6	5.8	23.6	3.5	11.0	9.1
	2019	77.9	48.7	24.9	4.3	22.1	3.5	10.6	8.0
	2020	78.3	50.8	23.7	3.8	21.7	3.2	10.8	7.7
	2021	79.4	52.0	24.4	3.1	20.6	2.9	10.4	7.2
	2022	79.7	53.6	23.4	2.7	20.3	3.2	10.5	6.6
	'00년 대비	18.2	34.4	-5.0	-11.2	-18.2	0.2	-5.7	-12.7
남성	'21년 대비	0.3	1.6	-1.0	-0.4	-0.3	0.3	0.1	-0.6
	2000	64.2	38.0	17.0	9.2	35.8	9.6	24.2	2.0
	2005	66.0	41.1	16.4	8.5	34.0	9.9	22.7	1.3
	2010	70.0	48.0	15.0	7.0	30.0	8.4	20.2	1.3
	2015	72.5	52.6	13.7	6.2	27.5	8.1	18.5	1.0
	2019	73.4	55.2	12.2	6.0	26.6	7.3	18.3	0.9
	2020	73.5	56.3	11.4	5.7	26.5	6.6	18.9	1.0
	2021	73.6	56.6	11.4	5.6	26.4	6.2	19.2	1.0
	2022	74.1	57.6	11.5	5.1	25.9	6.1	18.8	0.9
	'00년 대비	9.9	19.6	-5.5	-4.1	-9.9	-3.5	-5.4	-1.1
	'21년 대비	0.5	1.0	0.1	-0.5	-0.5	-0.1	-0.4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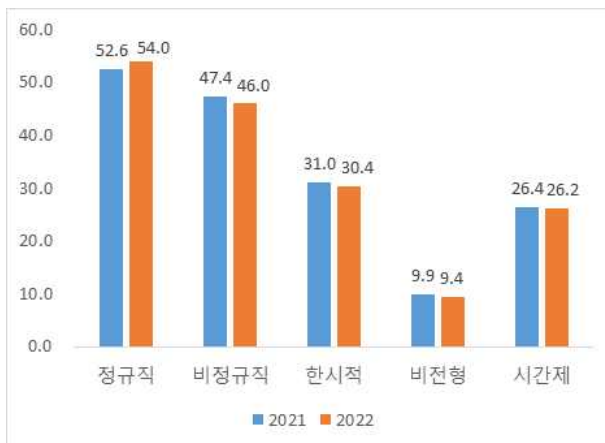
주 : 구성비는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11. 비정규직 취업자

'22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46%)이 남성(30.6%) 대비 15.4%p 높음

- '22년 여성 임금근로자(978만 8천 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54.0%(528만 5천 명), 비정규직은 46.0%(450만 3천 명)를 차지함
 - 남성 임금근로자(1,193만 6천 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69.4%(828만 3천 명), 비정규직은 30.6%(365만 3천 명)로 정규직 비율이 높음
 - '21년 대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 0.4%p, 여성 1.4%p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서 여성이 더 많고, 비전형* 근로에서는 남성이 더 많음
 -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21년 대비 비정규직 중 여성은 비기간제(0.2%p)와 가정 내(0.1%p) 근로자, 남성은 기간제(0.5%p)와 시간제(0.6%p) 근로자가 증가함

< 여성 근로형태별 비율 >



< 남성 근로형태별 비율 >



< 비정규직 취업자 구성 >

(단위 : 천 명, %)

	2021		2022		'21년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근로	9,476 (100)	11,517 (100)	9,788 (100)	11,936 (100)	312	419
정규직	4,985 (52.6)	7,941 (69.0)	5,285 (54.0)	8,283 (69.4)	300	342
비정규직	4,491 (47.4)	3,575 (31.0)	4,503 (46.0)	3,653 (30.6)	13	78
- 한시적	2,938 (31.0)	2,234 (19.4)	2,980 (30.4)	2,368 (19.8)	42	134
· 기간제	2,573 (27.2)	1,964 (17.1)	2,584 (26.4)	2,105 (17.6)	11	141
· 비기간제	365 (3.8)	269 (2.3)	396 (4.0)	263 (2.2)	31	-6
- 비전형	936 (9.9)	1,342 (11.7)	922 (9.4)	1,209 (10.1)	-14	-133
· 파견	102 (1.1)	109 (0.9)	101 (1.0)	88 (0.7)	-1	-21
· 용역	233 (2.5)	351 (3.0)	242 (2.5)	325 (2.7)	9	-26
· 특수형태	354 (3.7)	207 (1.8)	355 (3.6)	206 (1.7)	1	-1
· 가정 내	62 (0.7)	17 (0.1)	83 (0.8)	12 (0.1)	21	-5
· 일일근로	213 (2.2)	742 (6.4)	174 (1.8)	640 (5.4)	-39	-102
- 시간제	2,502 (26.4)	1,011 (8.8)	2,562 (26.2)	1,125 (9.4)	60	1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주 : 1) 각 년도 8월 기준

2)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3) 비전형 내 성별분리 통계는 관측빈도가 낮아 오차가 클 수 있음.

4) ()는 임금근로자 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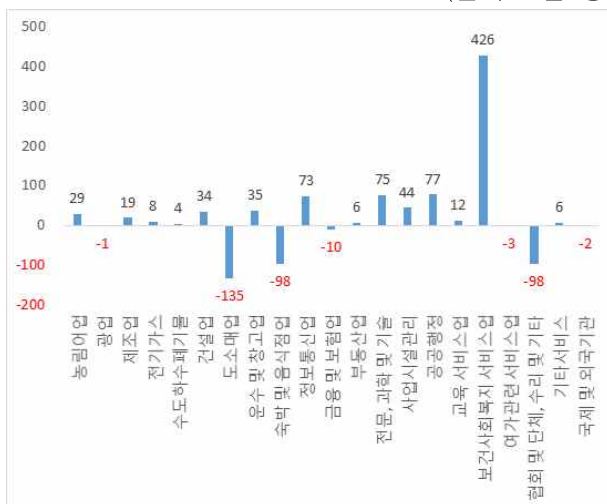
12. 산업별 취업자

'22년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율은 '21년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증가함

- '22년 남성 취업자 비율은 '21년 대비 「제조업」(0.2%p), 「운수업」(0.2%p) 분야에서 증가했고, 「도소매업」(0.6%p), 「건설업」(0.3%p) 분야 등에서 감소함
- 여성 취업자 비율은 「도소매업」(0.4%p), 「협회 및 단체, 기타」(0.4%p), 「금융 및 보험업」(0.3%p) 순으로 감소함
- 여성 취업자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1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2.7%), 「숙박 및 음식점업」(11%) 순임
- 남성 취업자는 「제조업」 종사 비율이 2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설업」(11.8%), 「도소매업」(11.1%) 순임
- 여성 취업자는 '19년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약 42만 6천 명 등 증가했고,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함
- 남성은 「운수 및 창고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했고, 「도소매업」에서 약 21만 5천 명 등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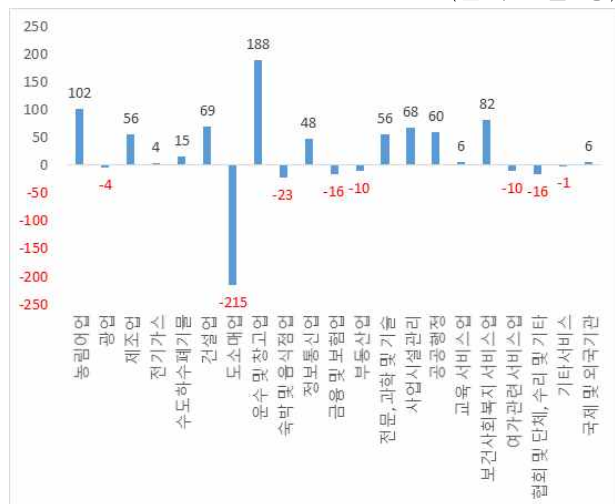
<여성 취업자 수 증감('22년-'19년)>

(단위 : 천 명)



<남성 취업자 수 증감('22년-'19년)>

(단위 : 천 명)



< 산업별 취업자 구성 >

(단위 : 천 명, %, %p)

	2021		2022		'21년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취업자	11,725 (100)	15,548 (100)	12,161 (100)	15,928 (100)	436	381
농림어업	4.8	5.8	4.9	5.8	0.1	0.0
광업	0.0	0.1	0.0	0.1	0.0	0.0
제조업	10.7	20.0	10.6	20.2	-0.1	0.2
전기가스	0.1	0.4	0.1	0.4	0.0	0.0
수도하수폐기물	0.3	0.9	0.2	0.8	-0.1	-0.1
건설업	1.8	12.1	1.9	11.8	0.1	-0.3
도소매업	13.1	11.7	12.7	11.1	-0.4	-0.6
운수 및 창고업	1.7	8.9	1.7	9.1	0.0	0.2
숙박 및 음식점업	11.0	5.2	11.0	5.3	0.0	0.1
정보통신업	2.4	4.0	2.7	4.1	0.3	0.1
금융 및 보험업	3.8	2.3	3.5	2.2	-0.3	-0.1
부동산업	1.7	2.1	1.8	2.1	0.1	0.0
전문, 과학 및 기술	3.8	5.0	4.0	5.1	0.2	0.1
사업시설관리	5.1	5.2	5.0	5.1	-0.1	-0.1
공공행정	4.1	4.3	4.2	4.4	0.1	0.1
교육 서비스업	10.5	3.9	10.5	3.9	0.0	0.0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7.7	2.9	18.3	3.0	0.6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1.5	1.9	1.6	0.0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4.7	3.7	4.3	3.7	-0.4	0.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활동	0.7	0.0	0.6	0.0	-0.1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1	0.0	0.1	0.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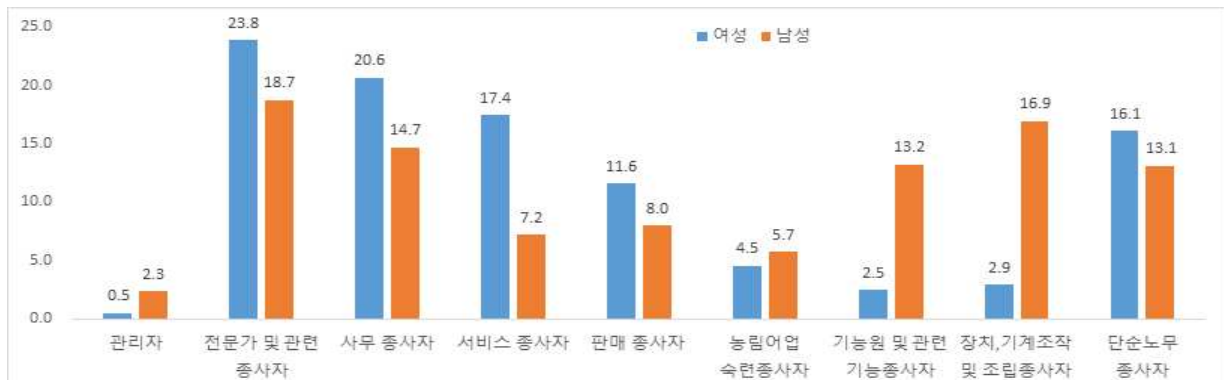
주 : 각 년도 취업자가 100.0임, 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13. 직업별 취업자

'22년 남성 취업자의 직업별 비율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6.9%) 순으로 높음

- '22년 여성 취업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20.6%), 「서비스 종사자」(17.4%) 순임
- 「서비스 종사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2%p 높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각 14.0%p, 10.7%p 높음
- '13년 대비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2.2%p, 남성은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2.8%p 증가했고, 「판매 종사자」비율이 여성은 3.0%p, 남성은 2.4%p 감소함

< '22년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천 명, %, %p)

		취업자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여성	2013	10,554	100.0	0.4	21.6	18.7	16.5	14.6	5.4	2.9	3.7	16.1
	2017	11,356	100.0	0.3	23.1	19.5	17.2	13.9	3.9	2.9	3.5	15.7
	2021	11,725	100.0	0.5	23.3	20.7	17.2	12.1	4.4	2.5	2.9	16.4
	2022	12,161	100.0	0.5	23.8	20.6	17.4	11.6	4.5	2.5	2.9	16.1
	'13년 대비	1,606	-	0.1	2.2	1.9	0.9	-3.0	-0.9	-0.4	-0.8	0.0
	'21년 대비	436	-	0.0	0.5	-0.1	0.2	-0.5	0.1	0.0	0.0	-0.3
남성	2013	14,745	100.0	2.5	18.2	15.5	6.1	10.4	5.7	13.2	17.9	10.3
	2017	15,368	100.0	1.8	18.2	15.9	6.4	9.8	4.9	13.4	18.1	11.4
	2021	15,548	100.0	2.1	18.3	14.9	6.8	8.7	5.7	13.6	17.0	12.9
	2022	15,928	100.0	2.3	18.7	14.7	7.2	8.0	5.7	13.2	16.9	13.1
	'13년 대비	1,183		-0.2	0.5	-0.8	1.1	-2.4	0.0	0.0	-1.0	2.8
	'21년 대비	381		0.2	0.4	-0.2	0.4	-0.7	0.0	-0.4	-0.1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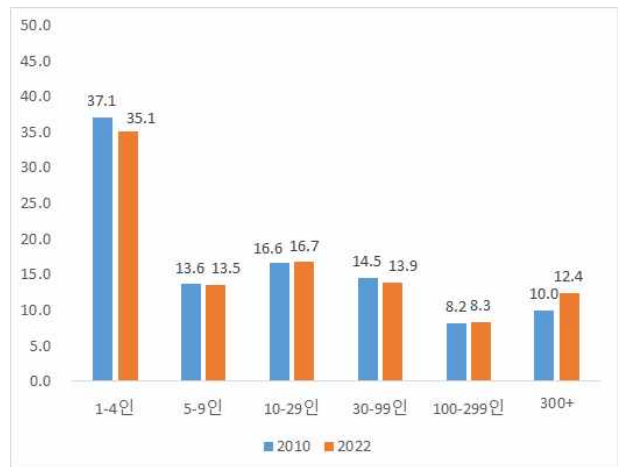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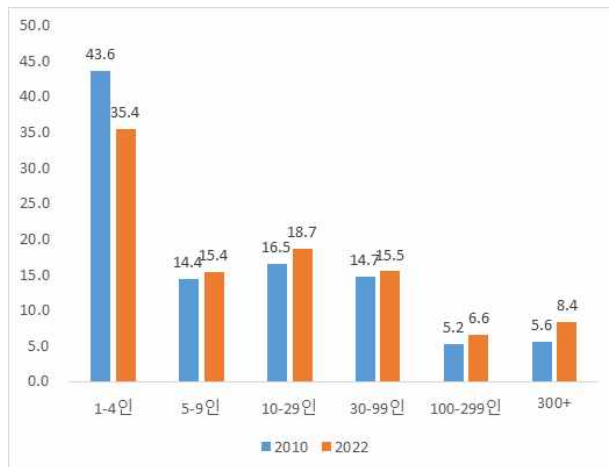
주 : 7차 표준직업분류 기준

14. 규모별 취업자

'22년 여성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비율은 84%로, '10년 대비 28%p 증가

- '22년 여성 취업자 중 30인 미만 규모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69.5%로 남성(65.3%)에 비해 4.2%p 높음
- 1~4인 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비중은 '10년 대비 여성 8.2%p, 남성 2.0%p 감소했고,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비중은 남성 2.5%p, 여성 4.2%p 증가함

< 여성 취업자 중 사업체 규모별 비율 > < 남성 취업자 중 사업체 규모별 비율 >



< 규모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천 명, %, %p)

		취업자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여성	2005	9,508	100.0	48.6	13.3	14.5	12.9	5.2	5.5
	2010	9,992	100.0	43.6	14.4	16.5	14.7	5.2	5.6
	2015	11,022	100.0	40.7	15.5	17.0	14.8	5.9	6.2
	2020	11,523	100.0	37.9	15.0	18.1	15.4	6.1	7.4
	2021	11,725	100.0	36.5	15.2	18.7	15.5	6.2	7.9
	2022	12,161	100.0	35.4	15.4	18.7	15.5	6.6	8.4
	'10대비	2,169		-8.2	1.0	2.2	0.8	1.4	2.8
	'21대비	436		-1.1	0.2	0.0	0.0	0.4	0.5
남성	2005	13,323	100.0	39.9	13.3	15.8	13.2	7.5	10.4
	2010	14,041	100.0	37.1	13.6	16.6	14.5	8.2	10.0
	2015	15,156	100.0	35.5	14.0	16.8	14.2	8.2	11.3
	2020	15,381	100.0	35.3	13.5	16.9	14.3	8.2	11.8
	2021	15,548	100.0	36.0	13.4	16.7	13.7	8.0	12.2
	2022	15,928	100.0	35.1	13.5	16.7	13.9	8.3	12.4
	'10대비	1,887		-2.0	-0.1	0.1	-0.6	0.1	2.4
	'21대비	381		-0.9	0.1	0.0	0.2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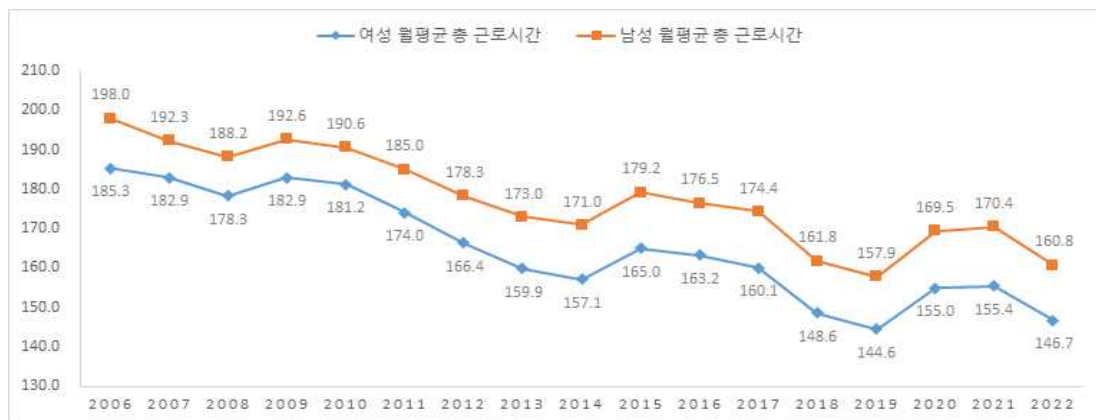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원 자료 분석.

15.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근속기간

'22년 여성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7시간으로 '10년 대비 34.5시간 감소

- '22년 남성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8시간으로 '10년(190.6시간) 대비 29.8시간 감소함
- 여성의 근로일수는 19.6일로 '10년(22.3일) 대비 2.7일 감소했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10년(8.1시간) 대비 0.6시간 감소함
- 남성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여정보다 14.1시간 더 많고, 남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2시간으로 여정보다 0.7시간 더 많음

<월평균 총 근로시간 추이>



<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

(단위 : 일, 시간)

	여성			남성		
	근로일수	월평균 총근로시간	하루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수	월평균 총근로시간	하루평균 근로시간
2008	21.7	178.3	8.2	21.7	188.2	8.7
2010	22.3	181.2	8.1	22.1	190.6	8.6
2012	20.9	166.4	8.0	21.0	178.3	8.5
2014	20.0	157.1	7.9	20.2	171.0	8.5
2015	21.4	165.0	7.7	21.7	179.2	8.3
2016	20.9	163.2	7.8	21.0	176.5	8.4
2018	19.4	148.6	7.7	19.6	161.8	8.3
2019	19.1	144.6	7.6	19.2	157.9	8.2
2020	20.8	155.0	7.5	20.7	169.5	8.2
2021	20.8	155.4	7.5	20.8	170.4	8.2
2022	19.6	146.7	7.5	19.6	160.8	8.2
'10년 대비	-2.7	-34.5	-0.6	-2.5	-29.8	-0.4
'21년 대비	-1.2	-8.7	0.0	-1.2	-9.6	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는 제외함

'22년 여성의 평균근속년수는 5.7년으로 남성(8.2년) 대비 2.5년 짧음

- '22년 여성의 평균근속년수는 5.7년으로 '10년(4.4년) 대비 1.3년 증가함
- 남성은 평균근속년수가 8.2년으로 '10년(7.0년) 대비 1.2년 증가함
- 남녀의 평균근속년수 차이는 2.5년으로 '10년(2.6년) 대비 0.1년 감소함

<평균 근속년수 추이>



< 평균근속년수 >

(단위 : 년)

	여성					남성				
	전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2009	4.4	4.8	4.4	4.0	4.5	7.1	8.2	7.2	6.1	7.1
2010	4.4	4.8	4.4	4.1	4.4	7.0	8.2	7.1	6.2	7.2
2011	4.3	4.5	4.2	4.0	4.8	7.0	8.0	6.8	6.0	7.3
2012	4.4	4.4	4.3	4.2	4.7	7.1	8.0	7.1	6.1	7.3
2013	4.6	4.5	4.4	4.5	5.0	7.3	8.3	7.2	6.4	7.6
2014	4.5	3.9	4.4	4.3	4.8	6.9	6.9	6.7	6.5	7.3
2015	4.6	4.0	4.3	4.5	4.9	7.1	7.2	6.8	6.7	7.6
2016	4.8	4.5	4.5	4.7	5.1	7.3	7.5	6.8	7.0	7.8
2017	4.7	4.3	4.4	4.5	5.0	7.2	7.5	6.9	6.8	7.6
2018	4.9	4.7	4.6	4.7	5.3	7.4	8.0	7.0	7.0	7.8
2019	5.1	4.7	4.8	4.9	5.4	7.7	8.1	7.3	7.4	8.0
2020	5.2	4.1	5.0	5.1	5.5	7.8	7.2	7.5	7.6	8.3
2021	5.4	4.6	5.3	5.4	5.7	8.1	7.7	7.8	7.9	8.3
2022	5.7	4.6	5.4	5.6	5.9	8.2	8.1	8.0	8.0	8.5
'10년 대비	1.3	-0.2	1.0	1.5	1.5	1.2	-0.1	0.9	1.8	1.3
'21년 대비	0.3	0.0	0.1	0.2	0.2	0.1	0.4	0.2	0.1	0.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는 제외함

16. 경력단절여성

'22년 경력단절여성은 약 139만 7천 명으로 '15년 대비 약 67만 6천 명 감소

□ '22년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 명이고,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 명으로 '21년 대비 5만 1천 명 감소함

*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2%로 '15년(21.7%) 대비 4.5%p 감소함

* 경력단절여성 비율(%) : ('15) 21.7 → ('22) 17.2

○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높음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5.3%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7.0%)에 비해 3.6배 높음

○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37.1%, 7~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22.0% 순으로 높음

<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사유 >

(단위 : 천 명, %, %p)

	15~54세 기혼여성 (A)	비취업 여성 (B)	B/A	사유별 경력단절여성(C)											
				전체	C/A	결혼	비율	임신·출산	비율	육아	비율	자녀 교육	비율	가족 돌봄	비율
2015	9,561	3,863	40.4	2,073	21.7	767	37.0	505	24.3	618	29.8	82	3.9	103	5.0
2018	9,005	3,457	38.4	1,847	20.5	634	34.4	445	24.1	619	33.5	71	3.8	78	4.2
2019	8,844	3,366	38.1	1,699	19.2	522	30.7	384	22.6	649	38.2	69	4.1	75	4.4
2020	8,578	3,420	39.9	1,506	17.6	414	27.5	321	21.3	640	42.5	62	4.1	69	4.6
2021	8,323	3,240	38.9	1,448	17.4	396	27.4	320	22.1	626	43.2	55	3.8	50	3.4
2022	8,103	3,027	37.4	1,397	17.2	368	26.3	318	22.7	597	42.8	50	3.6	64	4.6
'15년대비	-1,458	-836	-3.0	-676	-4.5	-399	-10.7	-187	-1.6	-21	13.0	-32	-0.3	-39	-0.4
'21년대비	-220	-213	-1.5	-51	-0.2	-28	-1.1	-2	0.6	-29	-0.4	-5	-0.2	14	1.2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주 : 비율은 각 년도 전체 경력단절여성 수 대비 해당 사유 경력단절여성 비율임(4월 기준)

< '22년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 천 명, %)

	기혼여성(A)	비취업 여성(B)	비율 (B/A)	경력단절 여성(C)	비율 (C/A)	비율 (C/B)
전체	8,103	3,027	37.4	1,397	17.2	46.1
18세 미만 자녀없음	3,567	1,113	31.2	251	7.0	22.6
18세 미만 자녀있음	4,535	1,914	42.2	1,146	25.3	59.9
- 6세 이하	1,743	890	51.1	646	37.1	72.6
- 7~12세	1,649	645	39.1	363	22.0	56.3
- 13~17세	1,143	379	33.2	137	12.0	36.1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주 : 자녀 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임

17. 성별 임금격차

'22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의 70.0%로, '10년 대비 8.4%p 개선

- '22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113원으로, 남성 25,866원의 70.0% 수준으로, '10년 대비 8.4%p 상승함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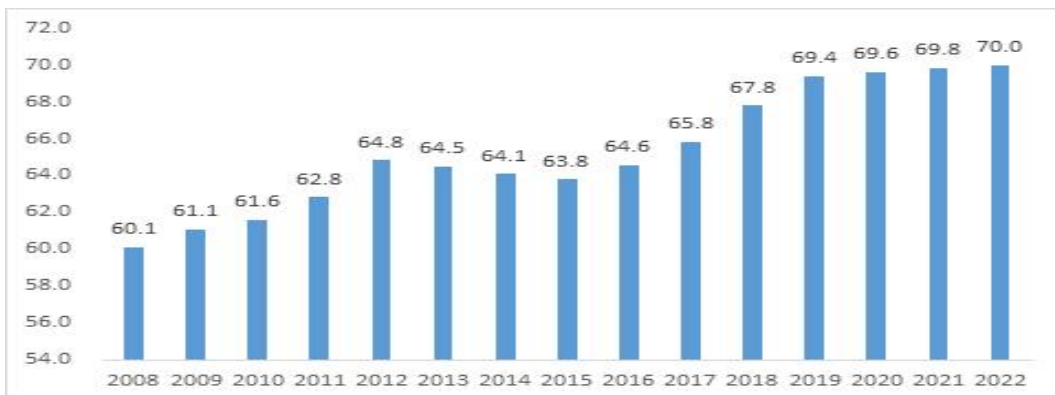
-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3천 원으로 남성 413만 7천 원의 65.0% 수준임

○ 남성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년(59.5%) 이후 증가 추세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여성이 74.5%, 남성이 72.5%로 남녀 모두 '10년 대비 각 9.1%p, 13.7%p 상승함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19,594원)이 남성(27,466원) 대비 71.3% 수준임

<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 >



< 남성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 수준 >



<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 >

(단위 : 원, %, %p)

	여 성				남 성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수준
	임금 ¹⁾²⁾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임금 ¹⁾²⁾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2008	8,941	10,140	6,085	60.0	14,877	16,018	8,758	54.7	60.1
2009	8,856	10,013	6,468	64.6	14,503	15,729	9,169	58.3	61.1
2010	9,300	10,480	6,857	65.4	15,095	16,418	9,658	58.8	61.6
2011	10,082	11,329	7,647	67.5	16,050	17,329	11,124	64.2	62.8
2012	11,228	12,279	8,971	73.1	17,317	18,594	11,959	64.3	64.8
2013	12,035	13,087	9,667	73.9	18,658	19,945	12,967	65.0	64.5
2014	12,500	13,772	9,818	71.3	19,505	21,054	13,243	62.9	64.1
2015	11,915	12,996	9,645	74.2	18,681	20,008	13,387	66.9	63.8
2016	12,573	13,720	10,008	72.9	19,476	20,815	14,189	68.2	64.6
2017	13,294	14,373	10,934	76.1	20,190	21,493	15,243	70.9	65.8
2018	15,265	16,560	12,356	74.6	22,519	24,060	16,704	69.4	67.8
2019	16,358	17,565	13,417	76.4	23,566	25,127	17,538	69.8	69.4
2020	15,372	16,508	12,732	77.1	22,086	23,356	17,311	74.1	69.6
2021	15,802	16,977	13,042	76.8	22,632	23,901	17,911	74.9	69.8
2022	18,113	19,594	14,588	74.5	25,886	27,466	19,903	72.5	70.0
'10년 대비	8,814	9,114	7,731	9.1	10,792	11,048	10,246	13.7	8.4
'21년 대비	2,312	2,616	1,547	-2.3	3,255	3,565	1,993	-2.4	0.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제외산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U.국제 및 외국기관」

2)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3) 시간당 임금=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총근로시간

4)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조사함

18. 저임금근로자

'22년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2.8%로 남성에 비해 1.9배 높음

□ '22년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약 223만 명으로, '10년 대비 17.0%p 감소함

*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자로 정의함

○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약 140만 9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11.8%를 차지하고, '10년 대비 4.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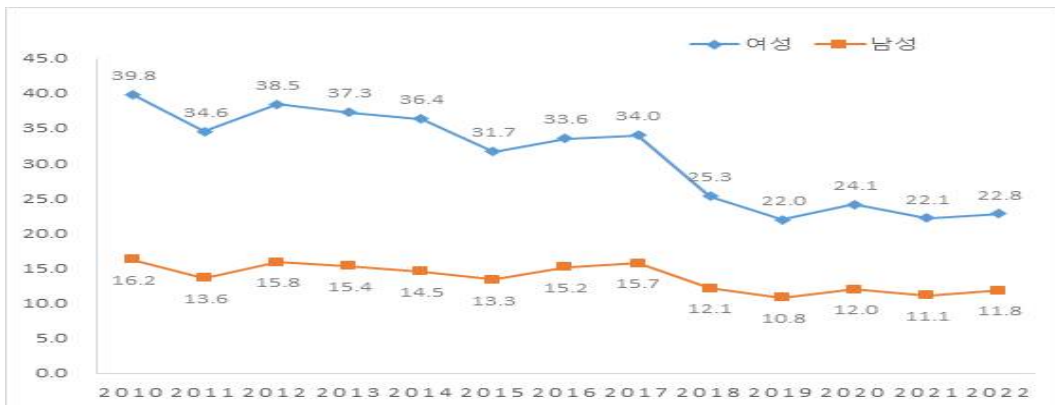
□ 하위 1분위 근로자*는 여성이 약 290만 명(29.6%), 남성이 약 175만 명(14.7%)으로 여성이 1.7배 많음

* 전체(남+여)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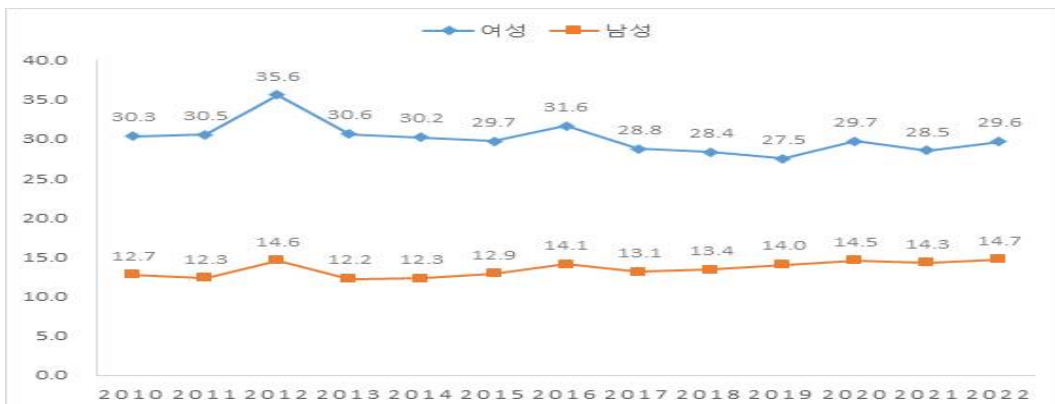
○ 임금수준이 높은 5분위 근로자 비율은 여성 10.3%, 남성 28.0%로 남성이 17.7%p 더 높음

○ 여성은 하위 1.2분위 비율이 56.4%, 남성은 상위 4.5분위 비율이 51.5%로, 남성 대비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음

< 저임금근로자 비율(%) >



< 하위 1분위 근로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 현황 >

(단위 : 천 명, %)

		임금근로자	분위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저임금근로자	비율(%)
여성	2010	7,320	30.3	28.1	18.9	14.4	8.3	2,915	39.8
	2011	7,547	30.5	27.9	19.1	14.1	8.3	2,608	34.6
	2012	7,663	35.6	23.6	22.8	10.9	7.1	2,947	38.5
	2013	7,886	30.6	32.7	16.2	12.6	7.8	2,940	37.3
	2014	8,196	30.2	29.7	18.8	12.7	8.5	2,980	36.4
	2015	8,468	29.7	27.3	20.9	13.2	8.9	2,682	31.7
	2016	8,658	31.6	25.9	19.5	13.5	9.5	2,906	33.6
	2017	8,818	28.8	28.8	18.5	13.9	10.0	3,000	34.0
	2018	8,874	28.4	27.8	19.6	14.8	9.4	2,244	25.3
	2019	9,163	27.5	35.2	14.8	12.6	9.9	2,012	22.0
	2020	9,085	29.7	29.8	16.4	13.9	10.2	2,187	24.1
	2021	9,476	28.5	27.0	20.7	13.9	9.9	2,098	22.1
	2022	9,788	29.6	26.8	19.7	13.6	10.3	2,230	22.8
	'10년대비	2,469	-0.7	-1.3	0.8	-0.8	2.0	-685	-17.0
	'21년대비	312	1.1	-0.2	-1.0	-0.3	0.4	132	0.6
남성	2010	9,870	12.7	14.4	20.1	24.4	28.3	1,600	16.2
	2011	10,168	12.3	14.6	20.2	24.6	28.3	1,385	13.6
	2012	10,278	14.6	12.6	24.2	24.0	24.6	1,628	15.8
	2013	10,517	12.2	17.3	18.8	25.1	26.5	1,615	15.4
	2014	10,796	12.3	15.3	18.9	25.7	27.8	1,569	14.5
	2015	11,007	12.9	14.0	20.0	24.6	28.5	1,468	13.3
	2016	11,086	14.1	14.0	20.0	24.0	27.9	1,681	15.2
	2017	11,188	13.1	15.3	19.0	24.7	27.9	1,753	15.7
	2018	11,171	13.4	14.9	19.6	27.2	24.9	1,355	12.1
	2019	11,396	14.0	19.8	16.4	23.0	26.8	1,230	10.8
	2020	11,361	14.5	15.9	17.6	24.6	27.3	1,363	12.0
	2021	11,517	14.3	13.4	19.1	24.9	28.3	1,277	11.1
	2022	11,936	14.7	13.3	20.5	23.5	28.0	1,409	11.8
	'10년대비	2,066	1.9	-1.2	0.4	-0.9	-0.3	-191	-4.4
	'21년대비	419	0.4	-0.1	1.5	-1.4	-0.3	133	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원자료 분석.

주 : 1)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2/3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2)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평소근로시간×(365÷84))

3) 분위분석은 시간당 임금 기준이며, 전체 분위값을 기준으로 한 성별 구성비임

Ⅲ. 일 · 생활 균형

19. 육아휴직자

'22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천 명으로, '19년 대비 약 2만 6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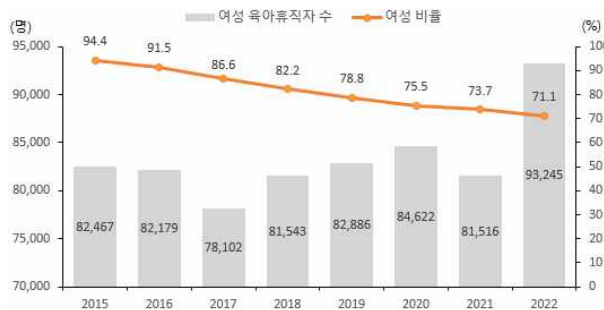
□ '22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대비 남성 약 1만 6천 명, 여성 약 1만 명 증가함

* 육아휴직자(명) : ('19) 105,181 → ('22) 131,129

□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3만 8천 명으로, '19년(2만 2천 명) 대비 1.7배 증가함

○ 여성 육아휴직자는 약 9만 3천 명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함

< 여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



<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



< 육아휴직자 수 >

(단위 : 명, %, %p)

	계	여성	여성 비율	남성	남성 비율
2015	87,339	82,467	94.4	4,872	5.6
2016	89,795	82,179	91.5	7,616	8.5
2017	90,145	78,102	86.6	12,043	13.4
2018	99,205	81,543	82.2	17,662	17.8
2019	105,181	82,886	78.8	22,295	21.2
2020	112,045	84,622	75.5	27,423	24.5
2021	110,555	81,516	73.7	29,039	26.3
2022	131,129	93,245	71.1	37,884	28.9
'15년 대비	43,790	10,778	-23.3	33,012	23.3
'21년 대비	20,574	11,729	-2.6	8,84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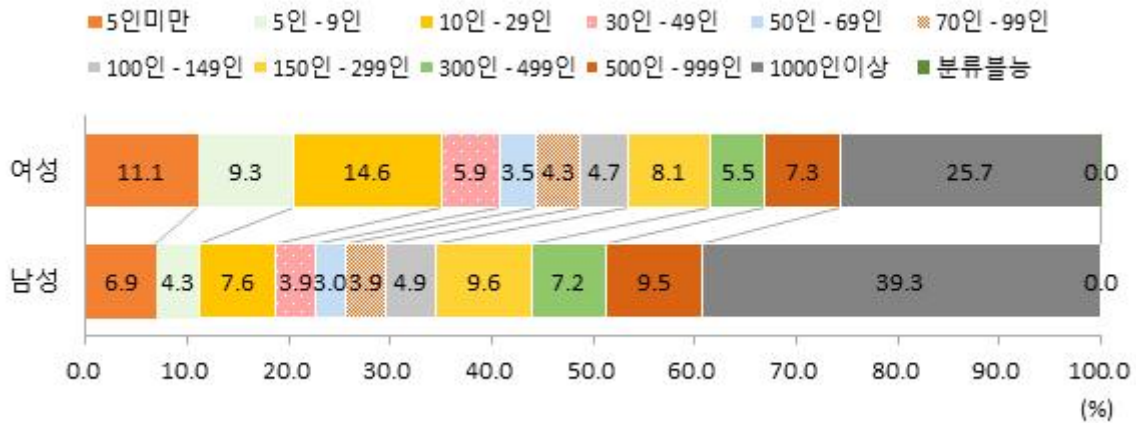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초회수급자 수 기준임

□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자 중 1천 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이 남성(39.3%)과 여성(25.7%) 가장 높음

○ 여성은 5명 미만(1.1%p)과 10~29명(1.1%p) 규모 사업장에서, 남성은 300~499명 규모 사업장(1.0%p)에서 '19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22년 사업장 규모별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



<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

(단위 : 명, %, %p)

		계	5인 미만	5인 -9인	10인 - 29인	30인 - 49인	50인 - 69인	70인 - 99인	100인 - 149인	150인 - 299인	300인 - 499인	500인 - 999인	1,000인 이상	분류 불능
여성	2015	82,467	9.3	7.4	11.9	4.7	3.0	3.6	4.4	8.0	4.8	7.1	35.8	0.0
	2016	82,179	8.7	7.4	12.2	4.7	3.1	3.7	4.3	8.1	5.1	7.3	35.3	0.0
	2017	78,102	8.7	7.6	12.6	4.8	3.2	4.0	4.8	8.1	5.3	7.1	33.7	0.0
	2018	81,543	9.4	8.1	13.3	5.0	3.3	4.0	4.7	8.3	5.4	6.9	31.5	0.0
	2019	82,886	10.0	8.6	13.5	5.0	3.4	4.0	4.5	8.5	5.5	7.5	29.4	0.0
	2020	84,622	10.3	8.9	14.1	5.6	3.5	4.1	4.5	8.3	5.7	7.5	27.6	0.0
	2021	81,516	10.4	8.9	14.3	5.5	3.5	4.1	4.7	8.4	5.7	7.6	27.1	0.0
	2022	93,245	11.1	9.3	14.6	5.9	3.5	4.3	4.7	8.1	5.5	7.3	25.7	0.0
	'15년 대비	10,778	1.8	1.9	2.7	1.2	0.5	0.6	0.3	0.1	0.6	0.3	-10.1	0.0
	'21년 대비	11,729	0.7	0.4	0.3	0.4	0.0	0.2	0.0	-0.3	-0.2	-0.3	-1.4	0.0
남성	2015	4,872	6.7	5.1	7.8	4.2	3.2	4.0	4.2	9.6	5.3	9.3	40.6	0.0
	2016	7,616	6.4	4.3	6.6	4.5	3.0	3.9	3.9	8.7	5.3	7.9	45.5	0.0
	2017	12,043	5.7	3.7	6.3	3.9	2.5	3.2	4.1	8.3	5.4	7.1	49.9	0.0
	2018	17,662	6.1	3.9	7.2	3.9	2.8	3.7	4.8	9.2	6.3	8.2	44.0	0.0
	2019	22,295	6.9	4.5	7.9	4.0	3.0	3.9	4.6	9.3	6.2	10.1	39.5	0.0
	2020	27,423	6.6	4.4	7.7	4.5	3.2	4.0	4.9	9.7	7.0	9.7	38.1	0.0
	2021	29,039	5.9	4.1	7.6	4.0	3.1	4.0	5.1	9.6	7.3	9.1	40.2	0.0
	2022	37,884	6.9	4.3	7.6	3.9	3.0	3.9	4.9	9.6	7.2	9.5	39.3	0.0
	'15년 대비	33,012	0.2	-0.8	-0.2	-0.3	-0.2	-0.1	0.7	0.0	1.9	0.1	-1.2	0.0
	'21년 대비	8,845	1.0	0.2	0.0	-0.1	-0.1	-0.1	-0.2	-0.1	0.0	0.4	-0.9	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초회수급자 수 기준임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9년 대비 3.4배 증가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약 1만 9천 명으로, 그중 여성 임금근로자가 89.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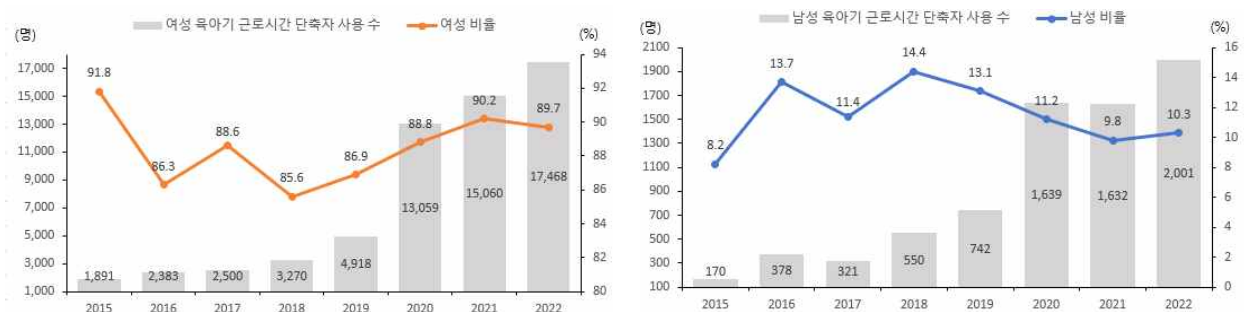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약 1만 7천 명으로, '19년 대비 3.6배 증가함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명): ('19) 4,918 → ('22) 17,468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약 2천 명으로 '19년 대비 2.7배 증가해, 전체 사용자 중 10.3%임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명): ('19) 742 → ('22) 2,001

< 여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현황 > < 남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현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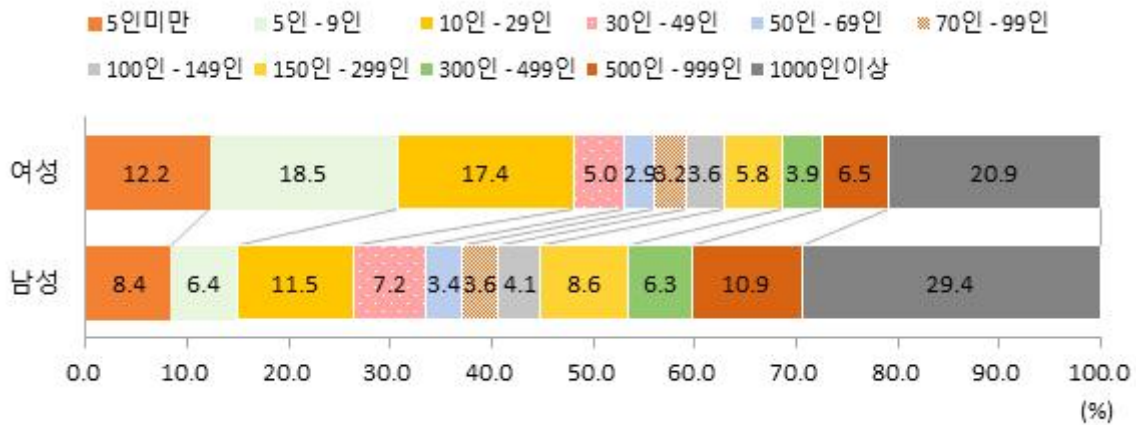
	계	여성	여성비율	남성	남성비율
2015	2,061	1,891	91.8	170	8.2
2016	2,761	2,383	86.3	378	13.7
2017	2,821	2,500	88.6	321	11.4
2018	3,820	3,270	85.6	550	14.4
2019	5,660	4,918	86.9	742	13.1
2020	14,698	13,059	88.8	1,639	11.2
2021	16,692	15,060	90.2	1,632	9.8
2022	19,469	17,468	89.7	2,001	10.3
'15년 대비	17,408	15,577	-2.1	1,831	2.1
'21년 대비	2,777	2,408	-0.5	369	0.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초회수급자 수 기준임

-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남성(29.4%)과 여성(20.9%) 모두 1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은 1천 명 이상(6.4%p) 규모 사업장에서, 남성은 500~999명 규모 사업장 (6.5%p)에서 '19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22년 사업장 규모별 남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현황 >



< 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

(단위 : 명, %, %p)

		계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 29인	30인 - 49인	50인 - 69인	70인 - 99인	100인 - 149인	150인 - 299인	300인 - 499인	500인 - 999인	1000인 이상
여 성	2015	1,891	18.1	15.4	17.9	7.4	4.4	4.0	3.4	5.5	2.9	4.7	16.2
	2016	2,383	16.8	15.5	20.4	7.6	4.5	3.5	4.0	6.3	2.8	4.4	14.1
	2017	2,500	16.0	14.8	19.8	6.4	4.7	4.9	4.0	5.8	3.3	4.8	15.5
	2018	3,270	16.1	13.5	19.1	7.7	3.8	4.6	4.4	6.6	4.1	4.9	15.1
	2019	4,918	16.2	16.3	17.8	6.9	3.6	4.0	3.8	6.8	3.8	6.4	14.5
	2020	13,059	13.6	17.4	16.4	5.6	2.8	3.0	3.4	6.1	4.2	6.5	21.0
	2021	15,060	14.3	19.6	15.8	4.9	2.7	3.2	3.6	6.1	3.5	6.1	20.2
	2022	17,468	12.2	18.5	17.4	5.0	2.9	3.2	3.6	5.8	3.9	6.5	20.9
	'15년 대비	15,577	-5.9	3.1	-0.5	-2.4	-1.5	-0.8	0.2	0.3	1.0	1.8	4.7
	'21년 대비	2,408	-2.1	-1.1	1.6	0.1	0.2	0.0	0.0	-0.3	0.4	0.4	0.7
남 성	2015	170	27.6	11.8	21.2	6.5	1.8	1.2	4.7	4.1	1.8	4.7	14.7
	2016	378	15.6	10.8	17.5	6.3	5.3	3.2	1.6	25.7	4.0	1.3	8.7
	2017	321	19.9	11.8	21.8	7.5	1.9	3.4	3.1	5.9	4.4	5.9	14.3
	2018	550	15.1	11.3	15.1	4.5	3.5	4.4	4.4	6.0	6.0	6.7	23.1
	2019	742	14.2	11.9	13.9	7.0	3.5	4.3	4.4	7.7	5.4	4.4	23.3
	2020	1,639	8.9	8.1	13.4	5.6	3.1	5.7	4.9	11.1	4.9	7.1	27.2
	2021	1,632	9.0	6.4	13.5	5.9	2.6	5.3	5.7	9.5	5.7	7.7	28.7
	2022	2,001	8.4	6.4	11.5	7.2	3.4	3.6	4.1	8.6	6.3	10.9	29.4
	'15년 대비	1,831	-19.2	-5.4	-9.7	0.7	1.6	2.4	-0.6	4.5	4.5	6.2	14.7
	'21년 대비	369	-0.6	0.0	-2.0	1.3	0.8	-1.7	-1.6	-0.9	0.6	3.2	0.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초회수급자 수 기준임

21. 유연근무제

'22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19년 대비 5.0%p 이상 증가

□ '22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여성은 14.4%로, '19년 대비 5.4%p 증가함

○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제(33.7%), 재택 및 원격근무제(28.3%), 선택적근무시간제(24.8%), 탄력근무제(23.9%)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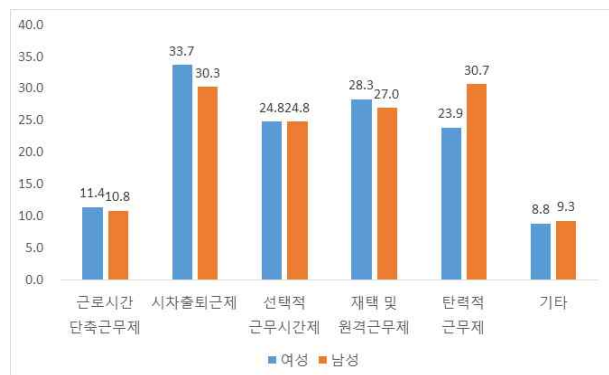
□ 남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7.3%로, '19년 대비 5.1%p 증가함

○ 유형별로는 탄력근무제(30.7%), 시차출퇴근제(30.3%), 재택 및 원격근무제(27.0%), 선택적근무시간제(24.8%) 순으로 높음

< 유연근무 활용비율 >



< '22년 유연근무 활용 유형 >



<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단위 : %, %p)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종류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5	4.6	4.7	0.6	0.3	37.8	45.2	29.4	36.1	6.7	7.7	28.0	25.1	14.2	10.8
2016	4.0	4.3	8.0	7.7	33.7	41.4	32.4	31.0	10.4	5.0	21.9	25.0	2.7	0.7
2017	4.9	5.5	8.7	10.7	36.5	39.8	32.8	31.3	7.2	4.6	24.0	27.4	10.7	8.0
2018	7.3	9.2	14.1	15.6	34.1	32.6	32.0	32.5	7.5	3.0	23.0	30.1	10.8	11.0
2019	9.0	12.2	17.0	17.1	32.1	34.6	30.5	30.4	5.8	3.4	28.7	34.0	11.4	8.6
2020	12.0	15.9	13.9	12.6	30.1	31.9	24.8	27.4	21.1	15.1	26.2	30.9	11.0	9.8
2021	15.2	18.2	9.9	10.3	28.7	30.6	22.7	23.4	34.4	30.8	24.4	29.5	8.5	8.8
2022	14.4	17.3	11.4	10.8	33.7	30.3	24.8	24.8	28.3	27.0	23.9	30.7	8.8	9.3
'15년 대비	9.8	12.7	10.8	10.5	-4.1	-15.0	-4.6	-11.3	21.6	19.2	-4.1	5.6	-5.4	-1.6
'21년 대비	-0.8	-0.8	1.5	0.5	5.0	-0.4	2.1	1.3	-6.1	-3.8	-0.5	1.2	0.3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주 : 1) 각 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함

2) 복수응답 허용으로 총합이 100.0%를 넘을 수 있음

□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여성의 18.7%, 정규직 남성의 21.1%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함

○ 반면 비정규직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여성은 9.2%, 남성은 8.7%로,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률이 낮음

□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성(38.7%)과 남성(41.3%) 모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음

○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5년 대비 여성은 24.2%p, 남성은 29.2%p 증가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단위 : %, %p)

	여성		남성		차이(남-여)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15	4.4	4.9	5.2	3.1	0.8	-1.8
2016	4.7	3.0	5.0	2.3	0.3	-0.8
2017	5.2	4.4	6.3	3.1	1.1	-1.3
2018	8.7	5.3	10.7	5.1	2.0	-0.2
2019	11.2	6.4	14.5	6.5	3.3	0.1
2020	15.5	7.8	19.2	7.9	3.7	0.1
2021	20.0	9.9	22.3	8.9	2.3	-1.0
2022	18.7	9.2	21.1	8.7	2.4	-0.5
'15년대비	14.3	4.4	15.9	5.7	1.6	1.3
'21년대비	-1.3	-0.6	-1.2	-0.1	0.1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주 : 각 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단위 : %, %p)

	2015			2022			'15년 대비	
	여성	남성	차이 (남-여)	여성	남성	차이 (남-여)	여성	남성
계	4.6	4.7	0.1	14.4	17.3	2.9	9.8	12.6
1~4명	0.3	0.5	0.2	1.3	1.7	0.4	1.0	1.2
5~9명	1.1	0.8	-0.3	2.2	2.2	0.0	1.1	1.4
10~29명	5.5	4.2	-1.3	15.7	14.0	-1.7	10.2	9.8
30~99명	6.2	4.1	-2.1	21.0	20.7	-0.3	14.8	16.6
100~299명	10.1	7.3	-2.8	22.8	24.9	2.1	12.7	17.6
300명 이상	14.5	12.1	-2.4	38.7	41.3	2.6	24.2	29.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주 : 각 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함

22. 시간 사용

'19년 맞벌이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 남성보다 2시간 13분 많음

- '19년 (19세 이상)성인이 일, 가사노동 등 의무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9분으로, '14년 대비 15분 감소함
 - 일(구직활동 포함)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1시간 53분 많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17분 많음
- 수면, 식사 등 필수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33분으로, '14년 대비 20분 증가함
-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평균 4시간 47분으로, '14년 대비 5분 감소함
 - 미디어 이용 시간이 여성은 2시간 27분, 남성은 2시간 32분으로, 남성이 5분 더 많음
 - 교제 및 참여 시간은 여성이 1시간 11분, 남성이 48분으로, 여성이 23분 더 많음

< (19세 이상)성인 시간 사용 >

(단위: 시간:분)

	전체		여성		남성		차이(여성-남성)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필수시간	11:13	11:33	11:16	11:39	11:11	11:27	0:05	0:12
수면	7:56	8:09	7:58	8:11	7:55	8:06	0:03	0:05
식사 및 간식	1:58	1:56	1:56	1:55	2:01	1:58	-0:05	-0:03
기타 개인 유지 ¹⁾	1:19	1:28	1:22	1:33	1:15	1:23	0:07	0:10
의무시간	7:54	7:39	7:59	7:40	7:49	7:38	0:10	0:02
일(구직활동 포함)	3:41	3:32	2:43	2:37	4:43	4:30	-2:00	-1:53
학습	0:23	0:24	0:21	0:21	0:26	0:26	-0:05	-0:05
가사노동 ²⁾	2:08	2:06	3:25	3:13	0:46	0:56	2:39	2:17
이동	1:41	1:38	1:30	1:29	1:53	1:46	-0:23	-0:17
여가시간	4:52	4:47	4:45	4:41	5:00	4:54	-0:15	-0:13
교제 및 참여	1:13	1:00	1:23	1:11	1:02	0:48	0:21	0:23
문화 및 관광	0:04	0:04	0:04	0:04	0:04	0:03	0:00	0:01
미디어 이용	2:28	2:30	2:24	2:27	2:32	2:32	-0:08	-0:05
스포츠 및 레포츠	0:31	0:31	0:26	0:26	0:37	0:37	-0:11	-0:11
기타 ³⁾	0:36	0:43	0:28	0:34	0:46	0:53	-0:18	-0:19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2)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 게임 및 놀이, 개인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 '19년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 필수시간 사용은 유사하나, 의무시간 및 여가시간 사용은 남녀 차이가 있음
 - 의무 시간 중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은 54분, 여성은 3시간 7분으로 남녀 차이가 가장 큼
 - 여가 시간의 경우 남성은 4시간 2분, 여성은 3시간 25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분 더 많음
- 여성 외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시간 36분, 남성이 1시간 59분으로 여성이 37분 더 많음
 - 여성 외벌이 가구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여성이 1시간 56분, 남성이 4시간 38분으로 남성이 2시간 42분 더 많음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 '14년 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감소함

< 맞벌이 여부별 시간사용 >

(단위 : 시간:분)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아내만 취업				남편만 취업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필수시간	10:51	10:59	11:12	11:11	10:57	11:44	11:17	12:16	11:10	11:04	11:34	11:18
수면	7:38	7:45	7:53	7:54	7:40	8:20	7:48	8:30	7:57	7:44	8:13	7:53
식사 및 간식	1:55	2:03	1:55	1:59	1:57	2:06	1:54	2:05	2:01	2:07	2:02	2:04
기타 개인 유지 ¹⁾	1:18	1:11	1:24	1:18	1:20	1:18	1:35	1:41	1:11	1:13	1:20	1:20
의무시간	9:42	8:53	9:24	8:46	9:26	3:23	8:57	3:40	7:35	8:47	7:22	8:43
일(구직활동 포함)	4:52	6:11	4:37	5:50	5:11	0:20	4:39	0:18	0:05	5:52	0:08	5:46
학습	0:02	0:02	0:03	0:04	0:02	0:11	0:06	0:10	0:09	0:03	0:12	0:04
가사노동 ²⁾	3:13	0:41	3:07	0:54	2:39	1:39	2:36	1:59	6:00	0:46	5:41	0:53
이동	1:35	1:59	1:37	1:58	1:34	1:13	1:36	1:12	1:21	2:06	1:20	2:00
여가시간	3:28	4:08	3:25	4:02	3:37	8:54	3:46	8:04	5:16	4:08	5:04	3:59
교제 및 참여	1:09	0:56	0:54	0:42	1:07	1:19	1:06	1:08	1:31	0:57	1:15	0:41
문화 및 관광	0:03	0:03	0:03	0:03	0:03	0:04	0:02	0:01	0:04	0:03	0:04	0:02
미디어 이용	1:40	2:10	1:49	2:14	1:45	5:05	1:56	4:38	2:41	2:08	2:39	2:12
스포츠 및 레포츠	0:18	0:29	0:18	0:30	0:21	1:33	0:19	1:16	0:34	0:30	0:32	0:30
기타 ³⁾	0:17	0:30	0:20	0:34	0:22	0:53	0:23	1:01	0:27	0:30	0:33	0:35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2)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 게임 및 놀이, 개인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IV. 경제상황

23. 자산과 부채

'22년 가구의 순자산은 '21년 대비 여성 가구주는 9.9%, 남성 가구주는 11.0% 증가

- '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 부채는 약 5천 2백만 원으로 '21년 대비 각 9.9%, 14.3% 증가함
 - 남성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약 5억 2천만 원, 부채는 약 1억 원으로 '21년 대비 각 11.0%, 3.6% 증가함
- 여성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48.4% 수준이고, 부채는 50.4% 수준임

*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에 비해 평균 가구원 수가 적고, 가구주 연령이 높은 편임
('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원 수 1.7명, 가구주 연령 58.0세, 남성 가구주 가구원 수 2.8명, 가구주 연령 54.2세)

< 가구의 경제상황 >

(단위 : 만원, %)

		가구원수 (명)	가구주 연령 (세)	순자산 (A-B)	자산(A)	부채(B)
여성 가구주	2017	1.9	58.2	17,243	20,831	3,588
	2018	1.8	59.0	18,357	22,063	3,706
	2019	1.8	59.9	18,566	22,695	4,130
	2020	1.7	60.5	19,373	23,502	4,128
	2021	1.7	59.3	23,096	27,712	4,616
	2022	1.7	58.0	25,389	30,666	5,277
	'21년 대비	-	-	[9.9]	[10.7]	[14.3]
남성 가구주	2017	3.1	52.5	35,728	43,845	8,117
	2018	3.1	53.3	38,921	47,716	8,795
	2019	3.0	54.1	40,171	49,187	9,016
	2020	2.9	54.7	41,454	50,971	9,517
	2021	2.9	54.5	47,216	57,332	10,116
	2022	2.8	54.2	52,409	62,889	10,480
	'21년 대비	-	-	[11.0]	[9.7]	[3.6]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1) []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

2) 조사 실시 연도 기준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 지출은 전년 연간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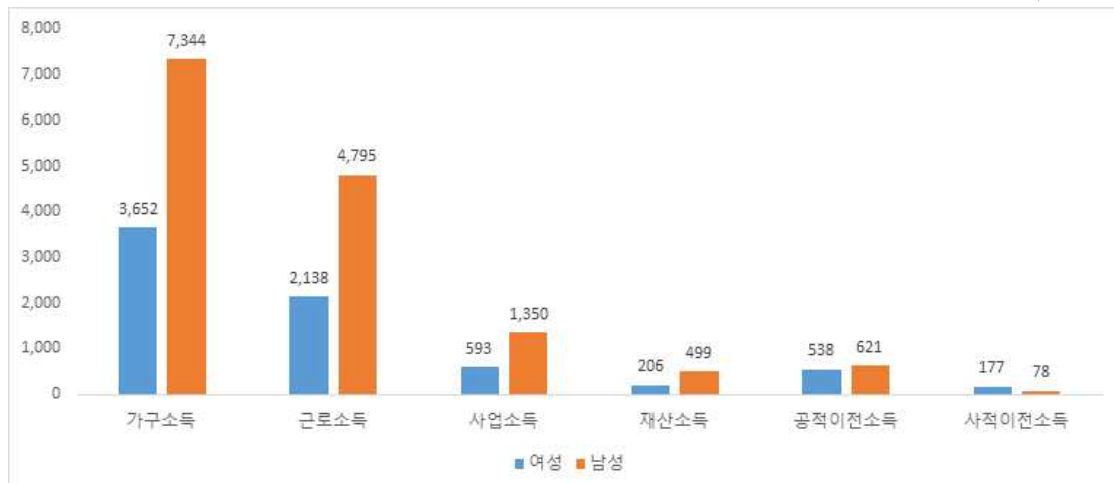
24. 가구소득

'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감소

- '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3천 7백만 원으로, '21년 대비 9.1% 증가함
 -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58.5%) 및 사업소득(16.2%) 비중이 '21년 대비 각 2.0%p, 0.9%p 증가함
 - *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 비율(%) : ('21) 56.5 → ('22) 58.5
 -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업소득 비율(%) : ('21) 15.3 → ('22) 16.2
- 남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7천 3백만 원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 대비 2배 많음
 - 남성 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비율이 65.3%로, '21년 대비 1.4%p 증가함

< 소득원천별 평균 가구소득 >

(단위 : 만원)



< 소득원천별 평균 가구소득 및 구성비 >

(단위 : 만원,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여성 가구 주	2017	2,923 (100.0)	1,695 (58.0)	557 (19.1)	201 (6.9)	324 (11.1)	146 (5.0)
	2018	2,986 (100.0)	1,736 (58.1)	541 (18.1)	203 (6.8)	343 (11.5)	163 (5.5)
	2019	3,052 (100.0)	1,790 (58.7)	509 (16.7)	207 (6.8)	375 (12.3)	171 (5.6)
	2020	3,085 (100.0)	1,760 (57.1)	482 (15.6)	225 (7.3)	432 (14.0)	186 (6.0)
	2021	3,348 (100.0)	1,893 (56.5)	513 (15.3)	219 (6.5)	547 (16.3)	177 (5.3)
	2022	3,652 (100.0)	2,138 (58.5)	593 (16.2)	206 (5.6)	538 (14.7)	177 (4.8)
	'21년 대비	[9.1]	[12.9] 2.0	[15.6] 0.9	[-5.9] -0.9	[-1.6] -1.6	[0.0] -0.5
남성 가구 주	2017	6,219 (100.0)	4,022 (64.7)	1,408 (22.6)	398 (6.4)	329 (5.3)	62 (1.0)
	2018	6,479 (100.0)	4,181 (64.5)	1,443 (22.3)	430 (6.6)	354 (5.5)	71 (1.1)
	2019	6,639 (100.0)	4,363 (65.7)	1,373 (20.7)	431 (6.5)	390 (5.9)	82 (1.2)
	2020	6,791 (100.0)	4,411 (65.0)	1,355 (20.0)	476 (7.0)	465 (6.8)	83 (1.2)
	2021	6,997 (100.0)	4,470 (63.9)	1,330 (19.0)	500 (7.1)	620 (8.9)	77 (1.1)
	2022	7,344 (100.0)	4,795 (65.3)	1,350 (18.4)	499 (6.8)	621 (8.5)	78 (1.1)
	'21년 대비	[5.0]	[7.3] 1.4	[1.5] -0.6	[-0.2] -0.3	[0.2] -0.4	[1.3] 0.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1) []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

2)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포함함

3) 사적이전소득은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단체 이전소득임.

4) 조사 실시 연도 기준으로 소득은 전년 연간기준임.

V. 사회안전망

25. 국민연금

'22년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 수는 약 303만 2천 명으로, '10년 대비 2.5배 증가

- '22년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는 '10년 대비 183만 명 이상 증가함
 - 여성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66.6%로 가장 높고, 유족연금 수급자 비율이 28.8%로 다음으로 높음
 -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37.4%로 '10년 대비 6.6%p 증가함
 - 유족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90.3%로 '10년 대비 1.8%p 감소함

<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 규모 >

(단위 : 명, %, %p)

	여성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000	380,954	(100.0)	35.5	0.6	0.00	28.7	34.8	0.4
2005	707,060	(100.0)	59.2	0.9	0.10	33.4	6.1	0.4
2010	1,198,389	(100.0)	59.8	0.9	0.04	32.6	6.0	0.6
2015	1,676,469	(100.0)	59.1	0.7	0.03	33.7	5.7	0.7
2020	2,474,882	(100.0)	63.4	0.7	0.03	31.4	4.0	0.5
2021	2,726,210	(100.0)	65.0	0.6	0.03	30.1	3.7	0.5
2022	3,031,798	(100.0)	66.6	0.6	0.03	28.8	3.5	0.5
'10년 대비	1,833,409	-	6.8	-0.3	-0.01	-3.8	-2.5	-0.1
'21년 대비	305,588	-	1.6	0.0	0.00	-1.3	-0.2	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년도

< 수급 유형별 여성 비율 >

(단위 : %, %p)

	여성 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000	40.8	28.1	9.6	8.7	92.2	43.5	29.9
2005	40.0	31.0	11.8	12.9	92.8	44.3	37.0
2010	40.0	30.8	14.2	15.6	92.1	50.5	47.5
2015	41.4	31.4	16.1	17.5	91.6	53.3	49.4
2020	44.1	35.1	20.7	24.6	90.6	53.6	51.1
2021	44.7	36.2	21.9	25.8	90.4	53.3	52.0
2022	45.4	37.4	22.9	26.4	90.3	52.5	51.6
'10년 대비	5.4	6.6	8.7	10.8	-1.8	2.0	4.1
'21년대비	0.7	1.2	1.0	0.6	-0.1	-0.8	-0.4

주 : 전체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중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년도

26. 고용보험

'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은 43.9%로, '10년 대비 6.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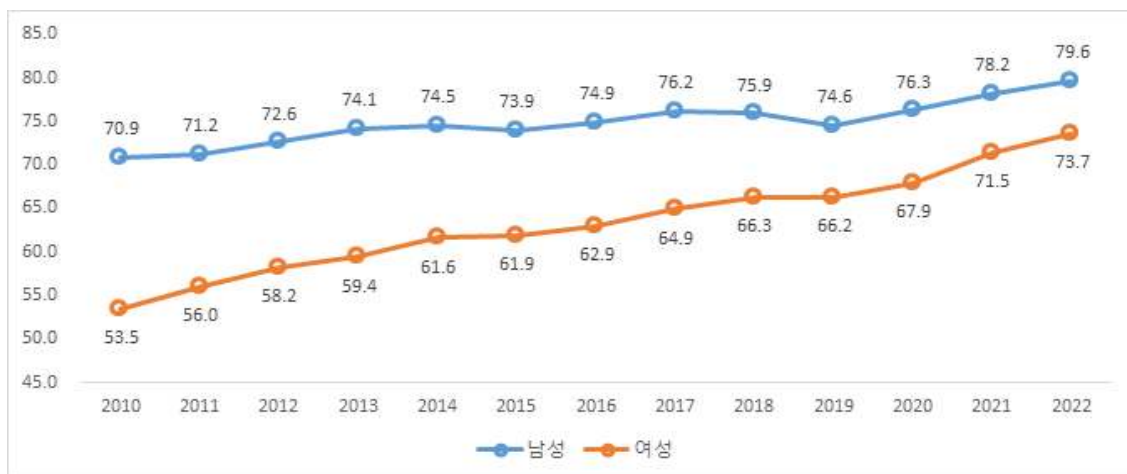
□ '22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7%로, '10년(53.5%) 대비 1.4배 증가함

* 고용보험 가입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비율임

□ '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은 약 639만 2천 명으로, '10년 대비 257만 2천 명 증가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행정통계인 고용보험DB자료 기준

<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주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단위 : 천 명, %, %p)

	전체	여성		남성	
		피보험자 수	구성비	피보험자 수	구성비
2005	7,966	2,724	34.2	5,241	65.8
2008	9,272	3,335	36.0	5,937	64.0
2010	10,131	3,821	37.7	6,310	62.3
2012	11,152	4,368	39.2	6,785	60.8
2014	11,931	4,816	40.4	7,115	59.6
2016	12,655	5,244	41.4	7,411	58.6
2018	13,432	5,718	42.6	7,715	57.4
2019	13,864	5,990	43.2	7,874	56.8
2020	14,112	6,150	43.6	7,962	56.4
2021	14,550	6,392	43.9	8,158	56.1
'10년 대비	4,419	2,572	6.2	1,847	-6.2
'20년 대비	438	243	0.4	195	-0.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7. 건강보험

'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10년 대비 여성 16.7%p, 남성 7.8%p 증가

- '22년 여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약 721만 4천 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42.3%를 차지함
- 남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약 983만 명으로 57.7%를 차지함
 - * 건강보험 가입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 임금근로자 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준)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임
- 여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73.7%로, '10년 대비 1.3배 증가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

(단위 : %)



<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 >

(단위 : 천 명, %, %p)

	임금근로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가입자 수	구성비	가입자 수	구성비
2010	7,320	9,870	4,169	36.1	7,366	63.9
2011	7,547	10,168	4,472	36.9	7,638	63.1
2012	7,663	10,278	4,704	37.4	7,872	62.6
2013	7,886	10,517	4,947	37.6	8,202	62.4
2014	8,196	10,796	5,234	38.5	8,344	61.5
2015	8,468	11,007	5,456	39.2	8,478	60.8
2016	8,658	11,086	5,690	39.7	8,647	60.3
2017	8,818	11,188	5,988	40.3	8,860	59.7
2018	8,874	11,171	6,210	41.0	8,926	59.0
2019	9,163	11,396	6,457	41.5	9,105	58.5
2020	9,085	11,361	6,499	41.4	9,192	58.6
2021	9,476	11,517	6,798	42.1	9,359	57.9
2022	9,788	11,936	7,214	42.3	9,830	57.7
'10년 대비	2,468	2,066	3,045	6.2	2,464	-6.2
'21년 대비	312	419	416	0.2	471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28. 기초생활수급자

'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35만 9천 명으로, '10년 대비 1.6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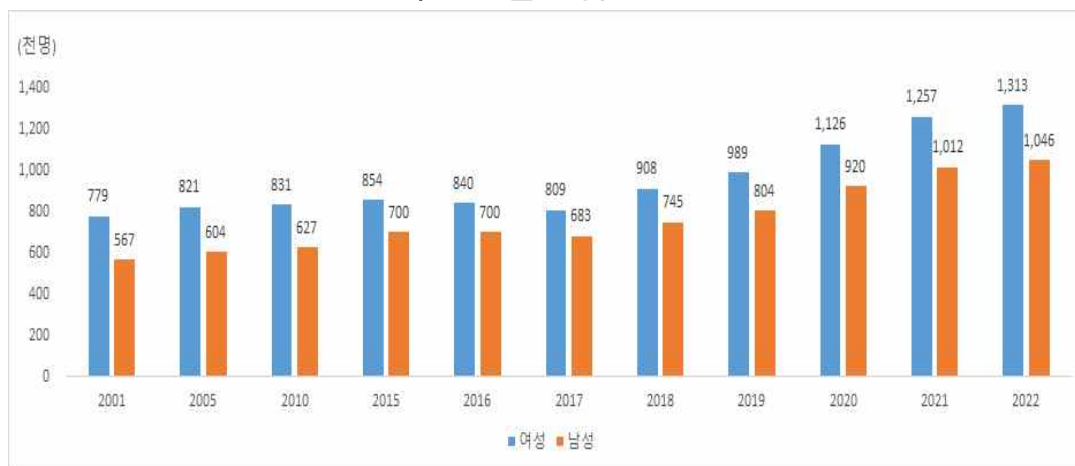
□ '22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1만 3천 명으로, '17년부터 증가 추세임

○ 남성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4만 6천명으로, '10년 대비 1.7배 증가함

□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5.7%로 남성에 비해 11.4%p 높음

* 성별 기초생활수급자 구성비(%) : ('21) 여성 55.4, 남성 44.6 → ('22) 여성 55.7, 남성 44.3

< 기초생활수급자 수 >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 %p)

	전체	여성	비율	남성
2001	1,345,526	778,501	57.9	567,025
2005	1,425,683	821,428	57.6	604,255
2010	1,458,198	831,400	57.0	626,798
2015	1,554,484	854,262	55.0	700,222
2016	1,539,539	839,804	54.5	699,735
2017	1,491,650	808,757	54.2	682,893
2018	1,653,781	908,475	54.9	745,306
2019	1,792,012	988,510	55.2	803,502
2020	2,046,213	1,125,891	55.0	920,321
2021	2,268,852	1,257,019	55.4	1,011,833
2022	2,359,228	1,313,212	55.7	1,046,016
'10년 대비	901,030	481,812	-1.3	419,218
'21년 대비	90,376	56,193	0.3	34,183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VI.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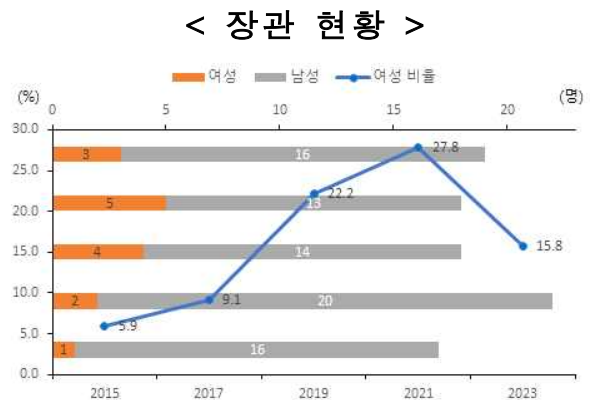
29. 국회의원 및 장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여성은 57명으로, '00년 이후 증가 추세

- '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19.0%로 '16년 대비 2.0%p 증가함
 -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04년 13.0%에서 '16년 17.0%, '20년 19.0%로 증가하는 추세임

- '23년 중앙행정기관 여성 장관은 3명으로, '22년과 동일함

* 여성 장관 수 : ('22) 3명/18명 → ('23) 3명/19명(국가보훈부 승격)



< 국회의원 및 장관 현황 >

(단위 : 명, %)

	전체 국회의원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체 장관	여성	남성	여성 비율
2000(16대)	273	16	257	5.9	2015	17	1	16	5.9
2004(17대)	299	39	260	13.0	2017	22	2	20	9.1
2008(18대)	299	41	258	13.7	2019	18	4	14	22.2
2012(19대)	300	47	253	15.7	2021	18	5	13	27.8
2016(20대)	300	51	249	17.0	2022	18	3	15	16.7
2020(21대)	300	57	243	19.0	2023	19	3	16	15.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Women in Politics」 (1월 1일 기준)

주 : 2023년은 6월 5일 기준(국가보훈부 승격)

30. 고위공무원

'22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은 23.2%로, '18년 대비 1.4배 증가

- '22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8년(16.2%) 대비 7.0%p 증가함
 -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모두 '18년 대비 각 4.5%p, 8.9%p 증가함
- 5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7.2%로, '18년 대비 11.7%p 증가함
 -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고위공무원 비율은 5.1%로 '18년 대비 증가함
 - 1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6.3%로 '18년 대비 15.1%p 감소함

<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 >



<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

(단위 : 명, %, %p)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17년 대비	'21년 대비
4급 이상	14.8	16.2	18.0	19.5	21.5	2,356	7,811	23.2	8.4	1.7
고위공무원	6.5	6.7	7.9	8.5	10.0	175	1,390	11.2	4.7	1.2
본부과장급	14.8	17.5	20.8	22.8	24.4	502	1,401	26.4	11.6	2.0

자료 :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각 년도

주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외무·별정직 공무원 대상

< 5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 여성 비율 >

(단위 : 명, %, %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12년 대비	'21년 대비
5급 이상 ¹⁾	8.0	9.7	10.6	11.6	12.6	13.8	15.5	17.7	20.6	24.0	6,644	17,789	27.2	19.2	3.2
고위 공무원	0.0	2.4	0.0	0.0	0.0	0.0	0.0	2.6	5.1	2.6	2	37	5.1	5.1	2.5
1급	0.0	0	0	0	6.7	30	21.4	6.7	7.7	13.3	1	15	6.3	6.3	-7.0
2급	0.0	1.5	4.5	5.1	5.7	1.2	2.3	4.4	6.8	3.3	3	97	3.0	3.0	-0.3
3급	4.5	5.9	4.5	4.4	5.1	6.3	6.1	6.9	7.9	9.0	43	402	9.7	5.2	0.7
4급	6.3	6.7	7.1	7.7	8.4	8.9	9.6	10.7	12.5	14.8	604	2918	17.1	10.8	2.3
5급	8.4	10.3	11.4	12.5	13.5	14.9	16.8	19.3	22.4	26.1	5,991	14,320	29.5	21.1	3.4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각 년도

주 : 1) 직급이 구분된 일반직과 일반임기제 합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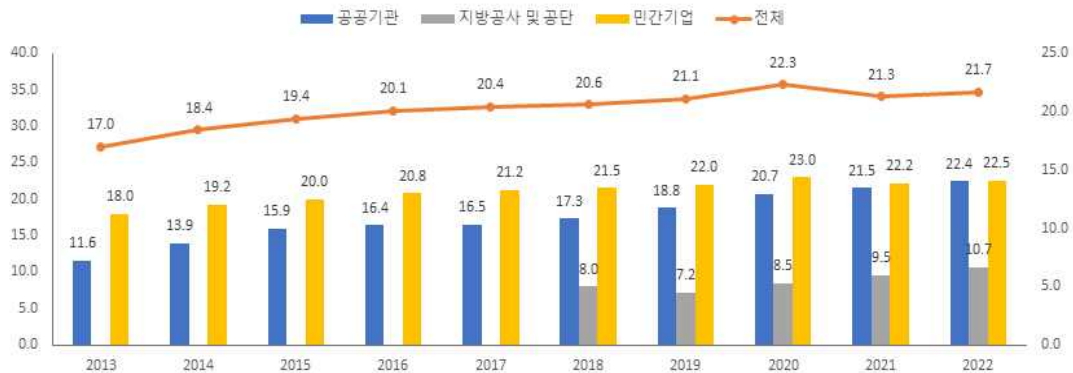
2) 행정부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 제외

31. 관리자 비율

'22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7%로, '18년 대비 1.1%p 증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포함)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8년 20.6%에서, '22년 21.7%로 상승함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4%로 '13년부터 지속 증가했고, 지방공사·공단은 10.7%로 '19년부터 지속 증가함
-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로 '18년(21.5%) 대비 1.0%p 증가함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



< 여성 관리자 비율 >

(단위 : %, %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비율	
										여성	남성	'13년 대비	'21년 대비
여성 관리자 ¹⁾	17.0	18.4	19.4	20.1	20.4	20.6	21.1	22.3	21.3	21.7	78.3	4.7	0.4
공공기관	11.6	13.9	15.9	16.4	16.5	17.3	18.8	20.7	21.5	22.4	77.6	10.8	0.9
지방공사·공단	-	-	-	-	-	8.0	7.2	8.5	9.5	10.7	89.3	-	1.2
민간기업 ²⁾	18.0	19.2	20.0	20.8	21.2	21.5	22.0	23.0	22.2	22.5	77.5	4.5	0.3

자료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남녀 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

주 : 1)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개별기업의 고용 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단순 평균과는 차이가 있음
2)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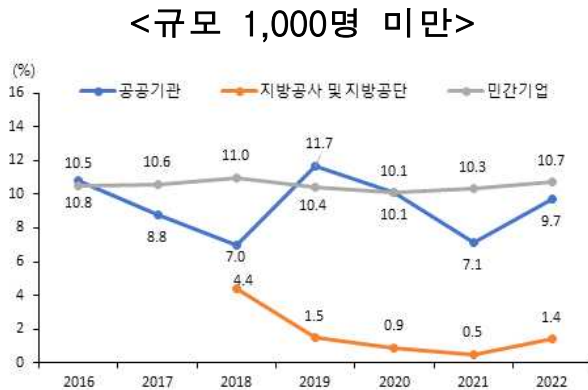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06년 도입)로서,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임

** 관리자는 직종상의 관리직과 구별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직급과는 무관하게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평)권, 결재권의 3가지 권한 유무로 판단

32. 기업의 이사 비율

'22년 민간기업(규모 1천 명 이상) 여성 임원은 12.4%로, '18년 대비 2.3%p 증가

- '22년 규모가 1천 명 미만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여성임원은 1.4%로 공공기관(9.7%), 민간기업(10.7%)에 비해 낮음
 - 공공기관은 '18년 대비 2.7%p 증가한데 비해, 민간 기업은 0.3%p, 지방공사·지방공단은 3.0%p 감소함
- 규모가 1천명 이상인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상승 추세임
 - 공공기관(7.1%) 여성 임원 비율은 '18년 대비 0.5%p 감소했고, 지방공사·지방공단(4.4%) 여성 임원 비율은 1.6%p 증가함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 여성 임원 현황 >

(단위 : 명, %)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2015	92	10.6	-	-	1,286	9.8	25	6.9	-	-	1,959	8.7
2016	94	10.8	-	-	1,261	10.5	32	9.5	-	-	2,138	9.1
2017	155	8.8	-	-	1,764	10.6	33	7.1	-	-	4,143	9.5
2018	74	7.0	4	4.4	2,898	11.0	30	7.6	1	2.8	2,626	10.1
2019	73	11.7	3	1.5	1,776	10.4	32	6.6	1	3.3	2,499	10.0
2020	82	10.1	13	0.9	2,741	10.1	39	6.9	2	4.6	2,681	10.6
2021	76	7.1	2	0.5	1,782	10.3	25	4.4	2	3.7	3,508	11.5
2022	112	9.7	2	1.4	1,707	10.7	27	7.1	2	4.4	3,736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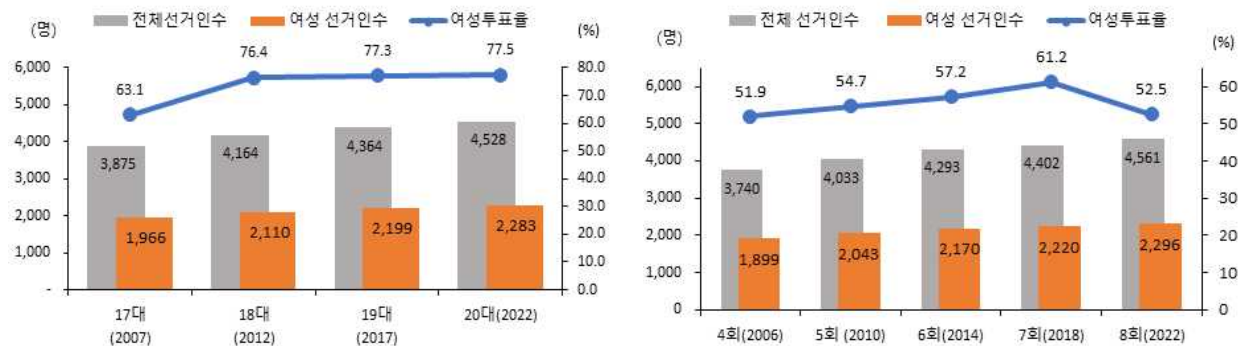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남녀 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

33. 유권자 수 및 투표율

'22년 전국지방선거 투표율은 51.5%로, '18년 대비 9.0%p 하락

- 제20대(2022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2%로, 제16대(2002년) 선거 이후 최고 수준임
 - 여성 투표율은 77.5%로 전체 투표율 보다 0.3%p 높음
- 제8회(2022년) 전국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1.5%로, 제7회(2018년) 투표율 60.5% 보다 9.0%p 하락함
 - 여성 투표율은 52.5%로 제7회(2018년) 투표율(61.2%) 보다 8.7%p 하락함

<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 및 투표율 > < 전국지방선거 유권자 수 및 투표율 >



< 대통령선거인수 및 투표율 >

(단위 : 천명, %)

	전체선거인수	전체투표율	여성 선거인수	여성투표율
16대(2002)	-	70.8	-	70.3
17대(2007)	3,875	63.2	1,966	63.1
18대(2012)	4,164	75.6	2,110	76.4
19대(2017)	4,364	76.8	2,199	77.3
20대(2022)	4,528	77.2	2,283	77.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주 : 표본조사 자료임

< 전국지방선거인수 및 투표율 >

(단위 : 천명, %)

	전체선거인수	전체투표율	여성 선거인수	여성투표율
4회(2006)	3,740	52.1	1,899	51.9
5회(2010)	4,033	54.9	2,043	54.7
6회(2014)	4,293	57.2	2,170	57.2
7회(2018)	4,402	60.5	2,220	61.2
8회(2022)	4,561	51.5	2,296	52.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주 : 표본조사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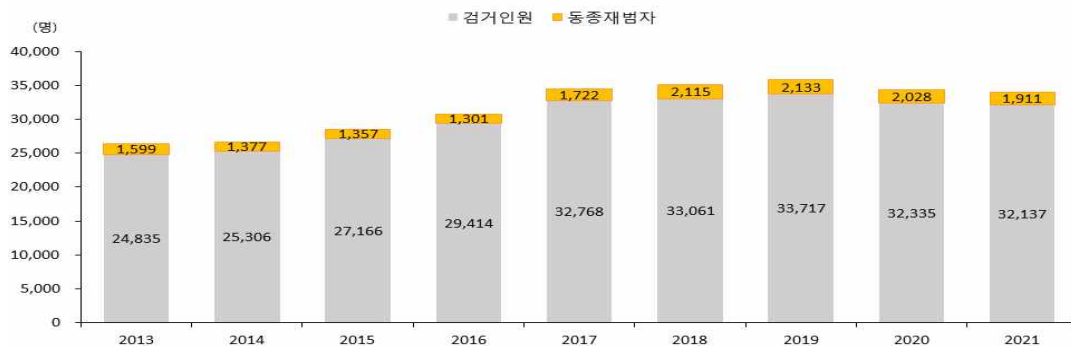
VII. 여성폭력

34.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약 3만 2천 건으로, '20년 대비 8.9% 증가

- '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2,080건이고, 검거 건수는 29,013건으로 검거율은 90.4%임
 - 성폭력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는 '20년 대비 각 2,613건, 876건 씩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98명 감소함
 - '21년 검거율은 '20년 대비 5.1%p 하락함
- 동종재범자 수는 1,911명으로 '20년 대비 117명 감소했고, 재범률은 0.3%p 감소함

<성폭력 검거인원과 동종재범자>



<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

(단위 : 건, 명, %, %p)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동종재범자	재범률
2013	28,786	25,591	24,835	88.9	1,599	6.4
2014	29,517	28,034	25,306	95.0	1,377	5.4
2015	30,560	29,539	27,166	96.4	1,357	5.0
2016	28,993	27,863	29,414	96.1	1,301	4.4
2017	32,234	31,041	32,768	96.3	1,722	5.3
2018	31,396	30,045	33,061	95.7	2,115	6.4
2019	31,396	29,971	33,717	95.5	2,133	6.3
2020	29,467	28,137	32,335	95.5	2,028	6.3
2021	32,080	29,013	32,137	90.4	1,911	6.0
'13년 대비	3,294	3,422	7,302	1.5	312	-0.5
'20년 대비	2,613	876	-198	-5.1	-117	-0.3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주 : 검거율=검거 건수/발생 건수*100

'21년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이 68.9%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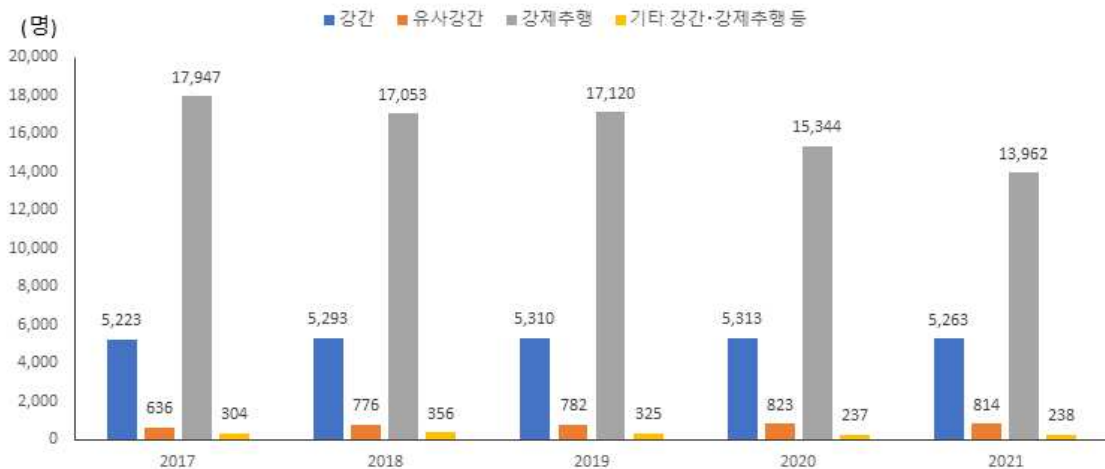
□ '21년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0,277명으로, '20년(21,717명) 대비 약 1천 4백 명 감소함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3,962명(68.9%), 강간 5,263명(26.0%), 유사강간 814명(4.0%),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음

○ '20년 대비 강제추행은 1.8%p 감소했고, 강간 1.5%p, 유사강간 0.2%p 증가함

< 강력범죄 중 성범죄 관련 피해자 수 >



< 강력범죄 중 성범죄 관련 피해자 현황 >

(단위 : 명)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7	5,223	5,176	25	636	553	68	17,947	16,257	1,356	304	293	7
2018	5,293	5,206	39	776	669	93	17,053	15,205	1,406	356	333	16
2019	5,310	5,245	34	782	686	86	17,120	15,303	1,489	325	313	7
2020	5,313	5,248	35	823	739	82	15,344	13,835	1,310	237	229	6
2021	5,263	5,175	40	814	724	85	13,962	12,327	1,248	238	227	8
'17년 대비	40	-1	15	178	171	17	-3,985	-3,930	-108	-66	-66	1
'20년 대비	-50	-73	5	-9	-15	3	-1,382	-1,508	-62	1	-2	2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주 : 전체 피해자 수에 '불상' 값이 포함 됨

35. 가정폭력 검거 현황

'21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약 4만 6천 건으로, '20년 대비 3.6% 증가

- '21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년 대비 1천 건 이상 증가함
-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약 5만 4천 명으로, '20년 대비 3.0% 증가함

< 가정폭력 검거 인원 >



< 가정폭력 검거 현황 >

(단위 : 건, 명)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2	8,762	9,345
2013	16,785	18,000
2014	17,557	18,666
2015	40,828	47,543
2016	45,619	53,511
2017	38,583	45,264
2018	41,905	43,576
2019	50,277	59,472
2020	44,459	52,431
2021	46,041	53,985
'12년 대비	37,279	44,640
'20년 대비	1,582	1,554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36. 교제 폭력 및 스토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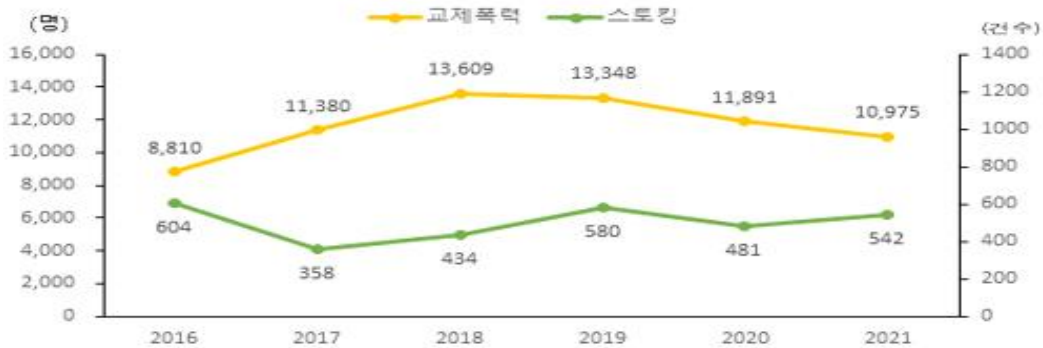
'21년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약 1만 1천 명으로, '20년 대비 7.7% 감소

- '21년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0,975명으로, '20년 대비 916명 감소함
 - 교제 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20대(36.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26.1%), 40대(18.7%) 순임

* 교제 폭력 범죄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를 의미함

-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20년 대비 12.7% 증가함
 - 즉결심판청구 건수는 191건으로, '20년(150건) 대비 1.3배 증가함

< 교제 폭력 범죄자 수·스토킹 검거 건수 >



< 교제 폭력 범죄자 연령별 분포 >

(단위 : 명, %)

	교제 폭력 범죄자 수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6	8,810	3.1	31.8	26.5	20.7	14.0	3.8
2017	11,380	2.8	34.0	25.2	20.0	14.3	3.7
2018	13,609	3.2	35.3	26.2	18.6	12.9	3.8
2019	13,348	2.8	35.8	25.4	18.3	13.6	4.1
2020	11,891	2.4	36.0	25.1	19.2	12.2	5.0
2021	10,975	3.0	36.3	26.1	18.7	11.8	4.0
'16년대비	2,165	-0.1	4.5	-0.4	-2.0	-2.2	0.2
'20년대비	-916	0.6	0.3	1.0	-0.5	-0.4	-1.0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로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p122)에서 인용함

주 : 범죄자는 범죄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피의자를 의미함

<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처분현황 >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6년 대비	'20년 대비
						전 체	여 성	남 성		
전 체	604	358	434	580	481	542	80	462	-62	61
통 고 처 분	-	333	434	435	331	351	53	298	351	20
즉 결 심 판 청 구	604	25	0	145	150	191	27	164	-413	41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37. 사이버 성폭력 검거 현황

'21년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약 4천 3백건으로, '20년 대비 10.0% 감소

□ '21년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349건으로, '20년(4,831건) 대비 482건 감소함

○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은 '20년 대비 각 33.4%, 20.1% 감소했고, '불법촬영물'은 60.9% 증가함

□ 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504건으로 '20년 대비 13.8% 감소했고, 검거율*은 80.6%로 3.5%p 감소함

* 검거율= (검거 건수/발생 건수)×100

○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 검거율은 '20년 대비 2.8%p, 0.1%p 증가함

* 아동성착취물 검거율(%) : ('20) 91.4 → ('21) 94.2, 불법성영상물 검거율(%) : ('20) 72.3 → ('21) 72.4

<사이버 성폭력 발생건수 비중>



< 사이버 성폭력 발생 현황 >

(단위 : 건, 명)

	전체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4	4,354	3,739	3,909	3,633	3,046	3,175	721	693	734	-	-	-	-	-	-
2015	4,244	3,475	3,474	3,523	2,801	2,755	721	674	719	-	-	-	-	-	-
2016	3,777	3,435	2,817	2,515	2,237	1,860	1,262	1,198	957	-	-	-	-	-	-
2017	2,646	2,329	2,287	2,043	1,794	1,744	603	535	543	-	-	-	-	-	-
2018	3,833	3,282	3,550	2,661	2,250	2,544	1,172	1,032	1,006	-	-	-	-	-	-
2019	2,690	2,164	2,891	1,769	1,436	1,862	756	589	886	165	139	143	-	-	-
2020	4,831	4,063	4,223	1,366	987	900	2,623	2,398	2,609	842	678	714	-	-	-
2021	4,349	3,504	3,030	1,091	790	639	1,747	1,646	1,331	1,355	994	981	156	74	79
'14년 대비	-5	-235	-879	-2,542	-2,256	-2,536	1,026	953	597	-	-	-	-	-	-
'20년 대비	-482	-559	-1,193	-275	-197	-261	-876	-752	-1,278	513	316	267	-	-	-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주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음란물', 2020년부터 '불법성영상물'로 명칭 변경됨

38. 해바라기센터 방문 현황

'22년 해바라기센터 방문 유형은 성폭력(69%), 가정폭력(16.2%) 순으로 많음

- '22년 해바라기센터 방문자는 총 24,909명으로 '20년 대비 1,103명 증가함
- 해바라기센터 방문 유형 중 '성폭력'이 17,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4,036명, '기타' 3,541, '성매매' 154명 순임
- '20년 대비 '가정폭력'은 254명 증가, '성폭력'은 29명, '성매매'는 49명 감소함

<해바라기센터 방문자 수>



< 해바라기센터 방문자 수 >

(단위 : 명)

	전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2012	22,333	16,735	3,023	219	2,356
2013	27,450	20,597	4,503	227	2,123
2014	28,487	20,693	5,517	239	2,038
2015	28,253	20,218	5,584	188	2,263
2016	26,878	19,134	5,135	151	2,458
2017	27,225	19,423	4,817	171	2,814
2018	27,450	20,449	4,147	182	2,672
2019	26,585	19,456	4,058	197	2,874
2020	23,806	17,207	3,782	203	2,614
2021	27,434	17,999	5,184	172	4,079
2022	24,909	17,178	4,036	154	3,541
'12년 대비	2,576	443	1,013	-65	1,185
'21년 대비	-2,525	-821	-1,148	-18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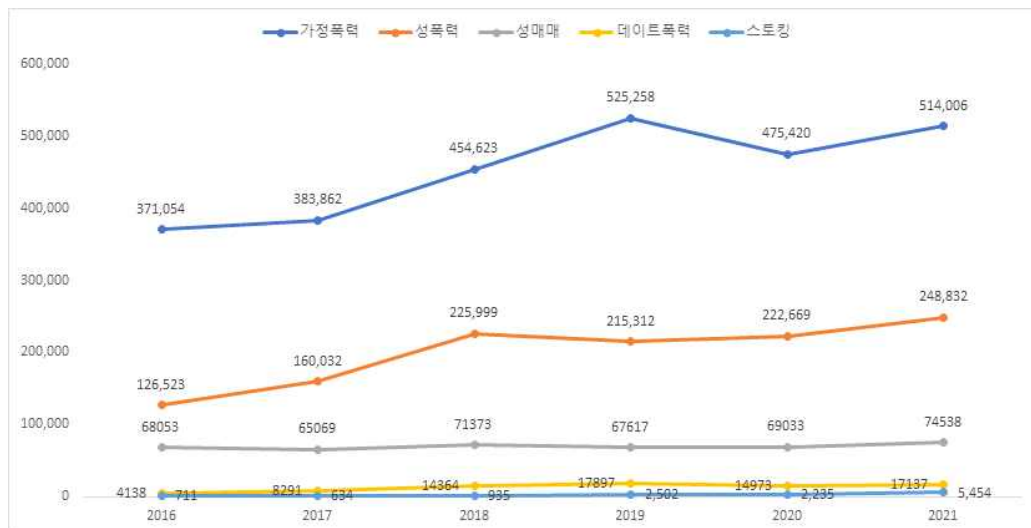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각 년도

39. 폭력 유형별 상담 현황

'21년 폭력 상담 건수는 약 86만 건으로, '20년 대비 9.7% 증가

- '21년 폭력 상담 유형 중 가정폭력이 5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폭력(28.9%), 성매매(8.7%) 순으로 많음
- 스토킹 상담건수는 5,454건으로, '20년 대비 2.4배 증가함

<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



<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

(단위 :건)

	전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2016	570,479	371,054	126,523	68,053	4,138	711
2017	617,888	383,862	160,032	65,069	8,291	634
2018	767,294	454,623	225,999	71,373	14,364	935
2019	828,586	525,258	215,312	67,617	17,897	2,502
2020	784,200	475,420	222,669	69,033	14,973	2,235
2021	859,967	514,006	248,832	74,538	17,137	5,454
'16년 대비	289,488	142,952	122,309	6,485	12,999	4,743
'20년 대비	75,767	38,586	26,163	5,505	2,164	3,219

자료 :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p.237~p.246)

주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상담 건수는 여성가족부(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콜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이용실적 합산함

VIII. 건 강

40. 기대수명

'21년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년, 남성은 80.6년으로, '10년 대비 3년 이상 증가

□ '21년 여성의 기대수명(0세의 기대여명)은 86.6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년으로 '10년 대비 여성은 3.0년, 남성은 3.8년 증가함

○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6.0년 높음

< 기대수명 >

(단위 : 년)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2010	80.2	83.6	76.8	-6.8
2011	80.6	84.0	77.3	-6.7
2012	80.9	84.2	77.6	-6.6
2013	81.4	84.6	78.1	-6.5
2014	81.8	85.0	78.6	-6.4
2015	82.1	85.2	79.0	-6.2
2016	82.4	85.4	79.3	-6.1
2017	82.7	85.7	79.7	-6.0
2018	82.7	85.7	79.7	-6.0
2019	83.3	86.3	80.3	-6.0
2020	83.5	86.5	80.5	-6.0
2021	83.6	86.6	80.6	-6.0
'10년 대비	3.4	3.0	3.8	0.8
'20년 대비	0.1	0.1	0.1	0.0

자료 : 통계청, 「생명표」

□ '20년 여성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7.2년,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71.3년임

*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 기대수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

○ 남성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6년이고,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70.7년으로, 여성 대비 각 1.6년, 0.6년 짧음

○ 여성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12년 대비 각 0.7년, 5.5년 증가했고, 남성은 각 0.6년, 4.1년 증가함

<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

(단위 : 년)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건강수명) ¹⁾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 ²⁾
여성	2012	66.5	65.8
	2014	65.7	67.5
	2016	65.2	68.4
	2018	64.9	69.0
	2020	67.2	71.3
	'12년 대비	0.7	5.5
	'18년 대비	2.3	2.3
남성	2012	65.0	66.6
	2014	64.7	67.7
	2016	64.7	68.8
	2018	64.0	69.1
	2020	65.6	70.7
	'12년 대비	0.6	4.1
	'18년 대비	1.6	1.6

자료 : 통계청, 「생명표」

주 : 1) 기대수명(0세의 기대여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2) 기대수명(0세의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

41. 건강행태

'21년 여성 흡연율은 6.9%로, 19~29세 흡연율(11.4%)이 가장 높음

□ '21년 19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31.3%로, '10년 대비 17.0%p 감소함

○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6.9%로, '10년(6.3%) 대비 0.6%p 증가함

○ 여성 비흡연자 중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에서 6.6%, 가정에서 4.5%로, '10년 대비 각 35.2%p, 15.3%p 감소함

< 흡연율 및 간접흡연 노출률 >

(단위 : %, 개비, %p)

	현재 흡연률 ¹⁾		현재 하루 평균 흡연량 ²⁾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³⁾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⁴⁾	
	여성	남성	여성 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5	5.7	51.7	-	15.8	31.8	44.6	24.1	7.1
2007	5.3	45.1	-	16.8	36.4	55.2	20.5	4.4
2008	7.4	47.8	10.8	16.6	38.2	53.4	20.5	6.5
2009	7.1	47.0	10.4	16.2	39.5	53.3	19.4	6.9
2010	6.3	48.3	-	16.0	41.8	58.7	19.8	5.8
2011	6.8	47.3	-	16.1	37.2	55.3	16.7	4.9
2012	7.9	43.7	-	15.8	38.9	54.5	16.0	4.8
2013	6.2	42.2	-	15.5	38.7	57.3	14.1	5.5
2014	5.7	43.2	-	15.2	32.8	49.1	13.9	4.8
2015	5.5	39.4	-	14.1	18.5	36.2	10.7	4.2
2016	6.4	40.7	-	13.8	12.1	23.5	7.9	4.0
2017	6.0	38.1	-	14.0	8.5	17.3	6.3	2.3
2018	7.5	36.7	-	13.9	8.7	14.4	6.1	1.0
2019	6.7	35.7	-	13.0	10.3	18.1	6.0	2.8
2020	6.6	34.0	-	12.9	6.6	14.1	5.1	2.3
2021	6.9	31.3	-	13.3	6.6	11.5	4.5	2.4
'05년 대비	1.2	-20.4	-	-2.5	-25.2	-33.1	-19.6	-4.7
'20년 대비	0.3	-2.7	-	0.4	0.0	-2.6	-0.6	0.1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세 이상)

- 1) 평생 일반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궤련)를 피우는 분율 (2019년부터 기존 '담배'를 '일반담배(궤련)'로 용어 변경)
- 2)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피우는 일반담배(궤련) 개비 수
- 3)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분율('13년 :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 4)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분율('13년 :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 5) 연령대별 응답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연령표준화 결과 비제시

- 남성 흡연율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15년 대비 감소했고, 특히 30대에서 크게 감소함(19.3%p)
- 여성 흡연율은 5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고, 19~29세(11.4%), 30대(7.9%), 40대(6.9%) 순으로 높음

< 연령별 흡연율 >

(단위 : %, %p)

	여성			남성		
	2015	2021	'15년 대비	2015	2021	'15년 대비
19세 이상	5.5	6.9	1.4	39.4	31.3	-8.1
19~29세	6.9	11.4	4.5	38.7	32.1	-6.6
30~39세	6.7	7.9	1.2	48.0	28.7	-19.3
40~49세	4.9	6.9	2.0	45.8	37.3	-8.5
50~59세	5.4	3.6	-1.8	36.5	35.5	-1.0
60~69세	2.8	3.5	0.7	26.1	27.3	1.2
70세 이상	3.7	1.2	-2.5	17.0	15.6	-1.4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세 이상)

'21년 여성 월간 음주율은 46.6%로, '10년 대비 3.3%p 증가

- '21년 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68.3%, 고위험 음주율은 19.7%로 '10년 대비 각 9.5%p, 2.3%p 감소함
-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10년 대비 3.3%p, 고위험 음주율 1.3%p 증가함
- 여성 고위험 음주율은 30대에서 1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29세 (9.5%), 40대(8.0%) 순임
-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40대(24.3%)와 50대(24.2%) 순으로 높음

< 음주율 >

(단위 : %, %p)

	월간 음주율 ¹⁾		고위험 음주율 ²⁾		월간 폭음률 ³⁾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5	37.0	72.6	3.4	19.9	17.2	55.3
2007	41.5	73.5	3.5	21.3	20.5	53.7
2008	45.0	74.7	6.2	24.5	22.3	56.7
2009	43.4	75.8	5.4	21.4	22.2	57.6
2010	43.3	77.8	5.6	22.0	22.1	57.6
2011	44.2	77.7	4.9	23.2	22.1	55.9
2012	42.9	73.6	6.0	21.9	22.9	53.4
2013	45.7	75.3	5.5	19.7	21.9	53.2
2014	46.4	74.4	6.6	20.7	22.5	53.1
2015	46.5	75.2	5.8	20.8	23.3	54.2
2016	48.9	75.3	6.3	21.2	25.0	53.5
2017	50.5	74.0	7.2	21.0	25.0	52.7
2018	51.2	70.5	8.4	20.8	26.9	50.8
2019	48.4	73.4	6.5	18.6	24.7	52.6
2020	47.8	70.2	6.3	21.6	24.7	51.9
2021	46.6	68.3	6.9	19.7	24.1	47.0
'05년 대비	9.6	-4.3	3.5	-0.2	6.9	-8.3
'20년 대비	-1.2	-1.9	0.6	-1.9	-0.6	-4.9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세 이상)

1)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2) 고위험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3) 월간폭음률 :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율

< 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

(단위 : %, %p)

	여성			남성		
	2015	2021	'15년 대비	2015	2021	'15년 대비
19세 이상	5.8	6.9	1.1	20.8	19.7	-1.1
19-29세	10.6	9.5	-1.1	14.6	16.0	1.4
30-39세	6.2	10.3	4.1	25.1	20.3	-4.8
40-49세	4.7	8.0	3.3	27.6	24.3	-3.3
50-59세	4.7	3.3	-1.4	23.1	24.2	1.1
60-69세	2.0	0.5	-1.5	16.7	18.2	1.5
70세 이상	0.3	0.4	0.1	5.8	8.3	2.5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세 이상)

'21년 걷기 운동 실천율은 여성(41.4%)이 남성(37.9%)보다 3.5%p 높음

□ '21년 여성의 걷기 운동 실천율은 '15년 대비 0.7%p 상승,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4.4%p 하락함

○ 남성의 걷기 운동 실천율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15년 대비 각 3.9%p, 5.6%p 하락함

□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남성 50.2%, 여성 45.4%로 남성이 4.8%p 높음

< 신체활동 실천율¹⁾ >

(단위 : %, %p)

	여 성		남 성	
	걷기 ²⁾	유산소 신체 활동 ³⁾	걷기 ²⁾	유산소 신체 활동 ³⁾
2015	40.7	49.8	41.8	55.8
2017	38.0	46.6	40.2	50.6
2018	40.0	44.0	40.5	51.0
2019	42.2	42.7	44.9	52.6
2020	38.5	43.0	39.8	48.3
2021	41.4	45.4	37.9	50.2
'15년 대비	0.7	-4.4	-3.9	-5.6
'20년 대비	2.9	2.4	-1.9	1.9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 만 19세 이상 인구 대상임

2)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3)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 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 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21년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남성은 39.7%로, '10년 대비 0.7%p 감소

□ '21년 19세 이상 여성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33.4%로, '10년 대비 0.4%p 증가함

○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체 연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70세 이상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남성이 32.8%로 여성(18.0%)보다 1.8배 높음

<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 %p)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2007	28.7	31.7	33.2	25.2	32.1	20.1	20.3
	2009	40.2	49.4	40.8	41.3	34.8	30.9	29.5
	2010	33.0	36.3	37.1	35.1	26.5	25.4	25.2
	2015	28.5	37.7	30.0	28.5	23.6	19.7	16.1
	2017	26.3	29.1	31.5	30.7	21.8	13.2	13.5
	2018	30.8	38.2	34.4	31.6	26.0	19.4	17.9
	2019	30.4	34.3	34.5	32.0	27.2	22.9	17.1
	2020	28.8	37.5	28.7	27.1	26.1	24.6	18.0
	2021	33.4	44.3	34.4	33.2	27.3	26.4	18.0
	'07년 대비	4.7	12.6	1.2	8.0	-4.8	6.3	-2.3
	'20년 대비	4.6	6.8	5.7	6.1	1.2	1.8	0.0
남성	2007	36.2	41.4	37.2	37.7	29.7	34.6	27.1
	2009	47.7	55.4	44.7	49.1	46.5	45.3	34.3
	2010	40.4	50.1	42.4	33.7	36.6	39.6	32.3
	2015	35.8	42.7	33.2	35.2	36.2	34.3	25.6
	2017	32.1	40.6	33.5	27.2	28.7	31.3	24.4
	2018	33.2	43.1	31.8	27.2	33.0	33.4	24.8
	2019	37.3	48.3	39.3	31.5	36.4	30.7	24.9
	2020	33.7	44.0	31.4	32.6	28.1	32.1	25.0
	2021	39.7	47.7	42.3	34.7	35.4	37.8	32.8
	'07년 대비	3.5	6.3	5.1	-3	5.7	3.2	5.7
	'20년 대비	6.0	3.7	10.9	2.1	7.3	5.7	7.8
'21년 차이 (남-여)		6.3	3.4	7.9	1.5	8.1	11.4	14.8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세 이상)

2)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임

42.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21년 유병률의 남녀 차이가 큰 질환은 비만으로, 남성이 19.4%p 높음

- '21년 당뇨, 비만,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빈혈 유병률은 여성이 높음
- 당뇨 유병률은 여성(7.8%) 보다 남성(12.8%)이 5.0%p 높고, 비만 유병률도 여성(26.9%) 보다 남성(46.3%)이 19.4%p 높음
 - 고혈압 유병률은 여성(17.1%) 보다 남성(25.2%)이 8.1%p 높은데 비해, 빈혈 유병률은 남성(3.6%) 보다 여성(14.6%)이 11.0%p 높음
- 당뇨, 비만, 빈혈 유병률은 '12년 대비 증가했고, 고혈압 유병률은 감소함
- 비만 유병률(4.7%p), 빈혈 유병률(2.0%p), 당뇨 유병률(1.7%p) 순으로 증가 폭이 큼

<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

(단위 : %, %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년 대비	'20년 대비
당뇨 유병률 ¹⁾	전체	8.6	10.7	9.3	8.0	9.7	9.1	9.2	9.5	10.7	10.3	1.7	-0.4
	여 성	7.8	9.2	7.5	7.0	8.3	7.3	7.1	8.0	8.2	7.8	0.0	-0.4
	남 성	9.4	12.0	11.2	9.1	11.1	10.9	11.2	11.1	13.0	12.8	3.4	-0.2
	차이(남-여)	1.6	2.8	3.7	2.1	2.8	3.6	4.1	3.1	4.8	5.0	3.4	0.2
비만 유병률 ²⁾	전체	32.4	31.8	30.9	33.2	34.8	34.1	34.6	33.8	38.3	37.1	4.7	-1.2
	여 성	28.0	25.1	23.3	25.9	26.4	25.6	25.5	25.0	27.7	26.9	-1.1	-0.8
	남 성	36.3	37.7	37.8	39.7	42.2	41.6	42.8	41.8	48.0	46.3	10.0	-1.7
	차이(남-여)	8.3	12.6	14.5	13.8	15.8	16.0	17.3	16.8	20.3	19.4	11.1	-0.9
고혈압 유병률 ³⁾	전체	23.4	22.0	20.1	22.1	23.3	22.0	23.1	22.2	22.9	21.4	-2.0	-1.5
	여 성	19.9	17.4	16.4	17.9	18.1	16.6	18.3	18.5	16.8	17.1	-2.8	0.3
	남 성	26.6	26.6	23.8	26.3	28.2	27.0	27.6	25.5	28.6	25.2	-1.4	-3.4
	차이(남-여)	6.7	9.2	7.4	8.4	10.1	10.4	9.3	7.0	11.8	8.1	1.4	-3.7
빈혈 유병률 ⁴⁾	전체	6.9	7.5	6.3	7.0	7.5	7.8	7.1	7.5	9.2	8.9	2.0	-0.3
	여 성	11.5	12.8	10.4	11.2	12.8	13.1	12.2	12.2	15.3	14.6	3.1	-0.7
	남 성	2.5	2.7	2.3	3.1	2.7	2.9	2.4	2.9	3.3	3.6	1.1	0.3
	차이(남-여)	-9.0	-10.1	-8.1	-8.1	-10.1	-10.2	-9.8	-9.3	-12.0	-11.0	-2.0	1.0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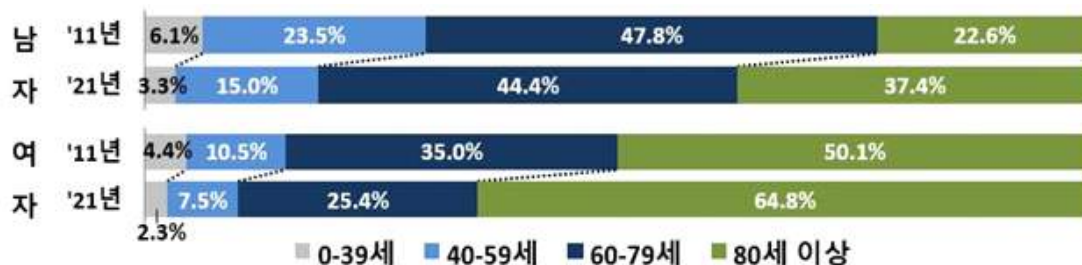
- 1)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있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 2)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 3)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 4) 빈혈 유병률 : 현재 빈혈(헤모글로빈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율 (헤모글로빈(g/dL) 기준: 10-11세 11.5미만, 12-14세 12미만, 15세이상 비임신여성 12미만, 임신여성 11미만, 남성 13미만)

43.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21년 주요 사망원인으로 남녀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가장 높음

- '21년 여성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64.8%로, '11년 대비 14.7%p 증가함
 - 남성 사망자는 60~79세가 44.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80세 이상임 (37.4%)
- 주요 사망원인으로 악성신생물(암) 사망률(인구 10만 명 당)이 남성 199.0명, 여성 123.4명으로 1위임
 - '11년과 비교하여 여성은 당뇨병과 고의적 자해(자살)가 빠지고 폐렴과 알츠하이머병이 5대 사망원인으로 등장함
 - 한편, 남성은 당뇨병이 빠지고 대신 폐렴이 5대 사망원인으로 등장함

< 성별·연령별 사망자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결과」 각 년도

< 5대 사망 원인별 사망률 >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순위	여성				남성			
	2011		2021		2011		2021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06.7	악성신생물(암)	123.4	악성신생물(암)	178.9	악성신생물(암)	199.0
2	뇌혈관 질환	52.8	심장질환	62.7	뇌혈관 질환	48.6	심장질환	60.3
3	심장질환	51.3	뇌혈관 질환	44.7	심장질환	48.3	폐렴	49.1
4	당뇨병	20.9	폐렴	39.8	고의적 자해(자살)	43.3	뇌혈관 질환	43.4
5	고의적 자해(자살)	20.1	알츠하이머병	21.7	당뇨병	22.1	고의적 자해(자살)	35.9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결과」 각 년도

44. 우울증 및 자살 사망자 수

'21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우울증) 검사에서 '우울 증상이 없음'으로 판정 받은 남성은 82.4%, 여성은 76.7%임

- '21년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2.4%로 남성(1.1%) 대비 1.3%p 높음
○ 70세 이상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5.4%로, 남성(0.3%) 대비 18배 높음

< 우울장애 유병률 >

(단위 : %, %p)

	2011		2016		2021		'11년 대비		'16년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계	4.3	1.8	2.0	1.1	2.4	1.1	-1.9	-0.7	0.4	0.0
18~29세	5.7	2.4	2.9	3.1	1.6	1.3	-4.1	-1.1	-1.3	-1.8
30~39세	2.5	1.2	2.4	0.1	2.5	0.5	0.0	-0.7	0.1	0.4
40~49세	4.0	1.6	0.6	1.4	2.3	0.7	-1.7	-0.9	1.7	-0.7
50~59세	4.9	2.4	1.8	0.6	2.4	1.3	-2.5	-1.1	0.6	0.7
60~69세	4.6	1.3	2.2	0.3	1.6	1.9	-3.0	0.6	-0.6	1.6
70세 이상	5.4	1.8	2.7	0.0	5.4	0.3	0.0	-1.5	2.7	0.3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주 : 주요 우울장애로, 최소 2주 이상 매일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고 일상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장애

-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우울증) 검사에서 '우울 증상이 없음'으로 판정 받은 남성은 82.4%, 여성은 76.7%임

<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단위 : 명, %, %p)

		계	우울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여성	2018	904,976	79.0	15.6	4.9	0.5
	2019	1,201,602	77.2	16.5	5.7	0.6
	2020	1,063,694	77.4	16.3	5.8	0.5
	2021	1,397,017	76.7	16.9	6.0	0.5
	'18년 대비	492,041	-2.3	1.3	1.1	0.0
	'20년 대비	333,323	-0.7	0.6	0.2	0.0
남성	2018	873,190	84.0	12.4	3.3	0.3
	2019	1,145,472	82.8	13.2	3.6	0.4
	2020	1,035,815	83.0	13.0	3.7	0.3
	2021	1,291,015	82.4	13.5	3.8	0.3
	'18년 대비	417,825	-1.6	1.1	0.5	0.0
	'20년 대비	255,200	-0.6	0.5	0.1	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 건강보험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사로, 정신건강검사는 한글판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함. 9개 문항을 읽고 수검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로,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함

□ '21년 자살로 인한 남성 사망자는 약 9천 2백 명, (인구 10만 명당)사망률은 35.9명임

○ 자살로 인한 여성 사망자는 약 4천 2백 명이고, 사망률은 16.2명으로 남성보다 19.7명 적음

○ 자살 사망률은 '10년 대비 남성 5.5명, 여성 4.8명 감소함

< 자살 사망자 수와 사망률 >

(단위 : 명, 10만 명당 명)

	여성		남성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2000	1,994	8.4	4,528	19.0
2010	5,237	21.0	10,329	41.4
2015	3,954	15.5	9,559	37.5
2016	3,849	15.0	9,243	36.2
2017	3,541	13.8	8,922	34.9
2018	3,808	14.8	9,862	38.5
2019	4,069	15.8	9,730	38.0
2020	4,102	15.9	9,093	35.5
2021	4,159	16.2	9,193	35.9
'00년 대비	2,165	7.8	4,665	16.9
'20년 대비	57	0.3	100	0.4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45. 치매 유병률

'21년 여성 치매 추정 환자는 54만 9천 명으로, '19년 대비 9.4% 증가

- '21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257만 6천 명으로, '19년(1,132만 명) 대비 11.1% 증가함
- 60세 이상 인구 중 남성 치매 추정 환자는 36만 1천 명으로, '19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는 '19년 대비 남녀 모두 4만 7천 명 이상 증가함

< 치매 환자 유병률 >

(단위 : 명, %)

	2019		2020		2021		'19년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노인인구수 ¹⁾	6,227,248	5,092,821	6,544,501	5,394,884	6,870,447	5,705,195	643,199	612,374
환자수 ²⁾	501,949	314,444	525,884	337,658	549,282	361,445	47,333	47,001
유병률 ²⁾	8.1	6.2	8.0	6.3	8.0	6.3	-0.1	0.1

자료 : 1)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치매현황」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임

46. 임신 및 출산

'21년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10년 대비 2.1세 상승

- '21년 산모의 초산(첫째 자녀) 출산 연령은 32.6세로, '10년 대비 2.5세 높아짐
 - 평균 출산 연령 및 초산 연령은 '05년 대비 각 3.2세, 3.5세 높아짐
-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 출생 비율은 9.2%, 쌍태아 이상 출생 비율은 5.4%임
 - 조산아 및 쌍태아 이상 출생 비율이 '10년 대비 각 1.6배, 2.0배 증가함

< 출산 순위별 산모 평균 출산 연령 >

(단위 : 세)

	산모 평균 출산 연령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
2005	30.2	29.1	31.0	33.6
2010	31.3	30.1	32.0	34.3
2015	32.2	31.2	33.0	34.7
2016	32.4	31.4	33.2	34.9
2017	32.6	31.6	33.4	35.0
2018	32.8	31.9	33.6	35.3
2019	33.0	32.2	33.8	35.4
2020	33.1	32.3	33.9	35.5
2021	33.4	32.6	34.1	35.6
'05년 대비	3.2	3.5	3.1	2.0
'20년 대비	0.3	0.3	0.2	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 및 쌍태아 이상 출생 비율 >

(단위 : 명, %, %p)

	전체 출생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 출생 비율	쌍태아 이상 출생 비율
2005	438,707	4.8	2.2
2010	470,171	5.9	2.7
2015	438,420	7.0	3.7
2016	406,243	7.3	3.9
2017	357,771	7.6	3.9
2018	326,822	7.8	4.2
2019	302,676	8.1	4.2
2020	272,337	8.5	4.9
2021	260,562	9.2	5.4
'05년 대비	-178,145	4.4	3.2
'20년 대비	-11,775	0.7	0.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 비율은 기간 미상을 제외한 후 산정함

47. 불임 치료 및 난임 시술

'21년 불임 치료 환자는 약 25만 2천 명으로, '17년 대비 20.9% 증가

- '21년 불임 치료 환자는 약 25만 2천 명으로, '17년(20만 9천 명) 대비 약 4만 4천 명 증가함
- 난임 시술 이용자는 약 14만 4천 명으로, 전체 불임 치료 환자 중 57.1%임
- 전체 불임 치료 환자 중 여성 비율은 64.6%로, '17년(70.1%) 대비 5.5%p 감소함
- 전체 난임 시술 이용자 중 여성 비율은 54.2%로, '17년(58.6%) 대비 4.4%p 감소함

< 불임 치료 및 난임 시술 이용 환자 >



<불임 치료 및 난임 시술 이용 현황¹⁾>

(단위 : 명, 건, 천 원, 회)

		불임 치료			난임 시술		
		환자 수 ²⁾	청구건수	요양급여비용 총액	환자 수 ²⁾	총 사용량 ³⁾	진료금액
여성	2017	146,235	721,873	28,470,040	7,366	22,245	8,059,664
	2018	151,489	1,073,126	114,748,869	62,529	379,071	134,222,566
	2019	150,049	1,081,163	120,566,219	66,547	434,962	157,672,246
	2020	149,353	1,120,703	162,679,470	70,505	528,090	196,211,619
	2021	162,938	1,281,076	205,160,960	78,099	600,149	227,206,237
	'17년 대비	16,703	559,203	176,690,920	70,733	577,904	219,146,573
	'20년 대비	13,585	160,373	42,481,490	7,594	72,059	30,994,618
남성	2017	62,468	94,737	4,745,045	5,203	5,424	579,962
	2018	77,971	140,202	9,854,200	53,933	86,840	9,449,510
	2019	80,753	146,959	9,988,415	56,775	95,140	10,471,903
	2020	79,029	147,460	11,102,338	60,241	107,796	11,973,936
	2021	89,350	168,013	12,695,492	65,900	116,846	13,215,107
	'17년 대비	26,882	73,276	7,950,447	60,697	111,422	12,635,145
	'20년 대비	10,321	20,553	1,593,154	5,659	9,050	1,241,171

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통계」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주 : 1) 심사년도 기준임

2) 환자 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동일 수진자가 입원/외래 유형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등)

3) 총사용량(또는 총 실시 횟수)= 1회 투여량 X 1일 실시횟수 X 총 실시 횟수(투여일수)

4) 난임 진단 시 상병명으로 불임(Infertility)을 사용하며, 불임 치료 환자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남성불임(N46), 여성불임(N97)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

IX. 사회인식

48. 주관적 만족도

'22년 여성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20년 대비 1.5%p 상승

- '22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여성 43.3%, 남성 43.4%로, '20년 대비 여성 1.5%p 상승, 남성 0.2%p 하락함
- 남성(60.3%)과 여성(58.1%) 모두 13~19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져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22년 연령별 주관적 만족도 >



< 주관적 만족도 >

(단위 : %, %p)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2017	29.5	48.4	30.5	35.7	33.9	25.3	18.5
	2018	40.6	57.7	42.9	48.8	44.5	36.5	29.3
	2019	38.5	59.9	47.1	47.0	42.1	32.1	25.3
	2020	41.8	60.1	46.3	46.9	45.4	38.5	32.3
	2021	34.3	49.2	35.6	38.9	40.9	33.5	24.6
	2022	43.3	58.1	48.9	47.1	46.1	42.4	34.4
	'18년 대비	2.7	0.4	6.0	-1.7	1.6	5.9	5.1
남성	'20년 대비	1.5	-2.0	2.6	0.2	0.7	3.9	2.1
	2017	30.0	47.9	28.6	30.5	32.8	26.8	23.0
	2018	41.1	59.0	44.5	42.5	42.7	37.4	32.2
	2019	39.8	58.7	44.1	44.3	41.7	35.1	29.2
	2020	43.6	64.5	48.2	45.8	43.0	39.9	35.7
	2021	33.8	49.6	33.4	32.8	35.0	35.6	27.7
	2022	43.4	60.3	46.7	44.5	44.0	41.7	36.6
	'18년 대비	2.3	1.3	2.2	2.0	1.3	4.3	4.4
	'20년 대비	-0.2	-4.2	-1.5	-1.3	1.0	1.8	0.9
'22년 차이(여-남)		-0.1	-2.2	2.2	2.6	2.1	0.7	-2.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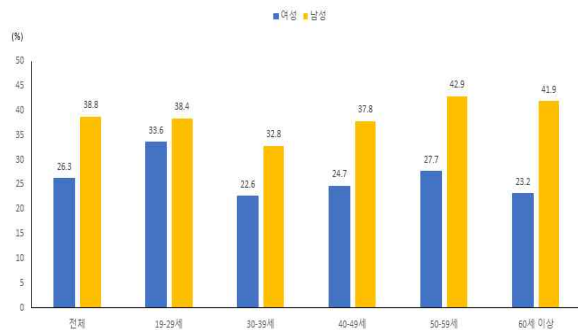
주 :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의 합임

49. 성역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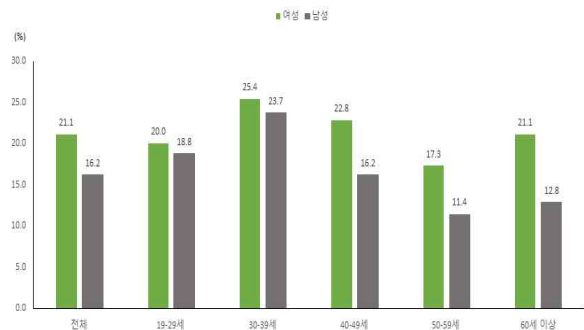
'21년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30대 남녀에서 가장 높음

- '21년 일과 가정생활 중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은 30대 여성(25.4%)과 남성(23.7%)이 가장 높음
 -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의 남녀 차이(여-남)가 큰 연령대는 60세 이상(8.3%p), 40대(6.6%p), 50대(5.9%p) 순임
- '일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19~29세(33.6%), 남성은 50대(42.9%)에서 가장 높음
 - 전체 남녀의 응답 차이(남-여)는 12.5%p로, 60세 이상(18.7%p), 50대(15.2%p), 40대(13.1%p) 순으로 높음

< 일을 우선 시 하는 비율 >



< 가정생활을 우선 시 하는 비율 >



< 일·가정생활 우선도 >

(단위 : %, %p)

		일을 우선시			가정생활을 우선시		
		2015	2021	'15년 대비	2015	2021	'15년 대비
여성	전체	42.3	26.3	-16.0	15.6	21.1	5.5
	19-29세	59.0	33.6	-25.4	11.3	20.0	8.7
	30-39세	39.8	22.6	-17.2	19.9	25.4	5.5
	40-49세	38.9	24.7	-14.2	16.4	22.8	6.4
	50-59세	40.1	27.7	-12.4	12.2	17.3	5.1
	60세 이상	32.8	23.2	-9.6	19.3	21.1	1.8
남성	전체	61.7	38.8	-22.9	9.4	16.2	6.8
	19-29세	62.8	38.4	-24.4	10.8	18.8	8.0
	30-39세	58.9	32.8	-26.1	11.7	23.7	12.0
	40-49세	62.1	37.8	-24.3	8.7	16.2	7.5
	50-59세	65.4	42.9	-22.5	6.0	11.4	5.4
	60세 이상	58.0	41.9	-16.1	11.3	12.8	1.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 자료 분석

주 : 1) 응답대상은 19세 이상이며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임

2) '일을 우선시'는 '일을 우선시 한다',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응답의 합이며, '가정생활을 우선시'는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와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의 합 비율

'22년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20년 대비 감소

- '22년 가사분담 인식에서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69.4%, 남성은 60.0%로, '20년 대비 여성 2.4%p, 남성 2.1%p 증가함
- 가사를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34.4%로 여성(26.2%)보다 8.2%p 높음
- 가사분담 실태에서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23.7%, 남성은 18.2%로, '20년 대비 각 1.4%p, 2.9%p 감소함
-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20.5%, 남성은 21.3%로, '20년 대비 여성 0.3%p, 남성 0.6%p 증가함

< 가사분담 인식 >

(단위 : %, %p)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성	2018	2.5	31.7	63.4	1.8	0.6
	2020	2.7	27.5	67.0	2.0	0.8
	2022	2.3	26.2	69.4	1.5	0.5
	'18년 대비	-0.2	-5.5	6.0	-0.3	-0.1
남성	2018	5.2	37.5	54.6	2.1	0.6
	2020	5.3	34.2	57.9	1.8	0.8
	2022	3.6	34.4	60.0	1.6	0.4
	'18년 대비	-1.6	-3.1	5.4	-0.5	-0.2
'22년 차이(여-남)		-1.3	-8.2	9.4	-0.1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가사분담 실태 >

(단위 : %, %p)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	공평하게 분담한다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여성	2018	26.9	50.8	19.5	2.4	0.4
	2020	25.1	51.7	20.2	2.5	0.4
	2022	23.7	52.4	20.5	2.9	0.5
	'18년 대비	-3.2	1.6	1.0	0.5	0.1
남성	2018	21.9	54.3	20.2	2.9	0.8
	2020	21.1	54.6	20.7	2.7	1.0
	2022	18.2	56.4	21.3	3.3	0.8
	'18년 대비	-3.7	2.1	1.1	0.4	0.0
'22년 차이(여-남)		5.5	-4.0	-0.8	-0.4	-0.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주 : 응답대상은 19세 이상 부부(주말부부 포함)임